

Vol.10

Winter 2023
한국해양진흥공사 매거진
www.kobc.or.kr

비타민 SEA

스페셜 1 2023년, 그해 우리는: 올해의 신규 사업들

스페셜 2 과거에서 미래까지, 다시 그린 인류항해사: 미디어전시 「시대를 향해하다」

해운 INSIDE 대한민국의 해양 시민운동을 이끌어온 해양수산계의 대부, 박인호 대표 인터뷰

KOBC는 지금 '해양강국 대한민국' 달성을 위해 하나된 우리!

부산 핫스팟 든든한 한 해 마무리, 식도락 길을 걷다

vol.10

Winter 2023
한국해양진흥공사 매거진
www.kobc.or.kr



<비타민 SEA>

필수 영양소 '비타민 C'에 SEA(바다)를 활용한 이름으로, 바다와 해운업에 영감을 보충하는 한국해양진흥공사의 계간 소식지(사보)입니다. 한국해양진흥공사의 해운기업 지원 정보뿐만 아니라 해운산업과 관련된 각종 글, 공사 임직원의 이야기 그리고 이 책을 접하는 일반 독자들에게 즐거움과 유익함을 주는 정보까지 다양한 콘텐츠를 풍부하게 담았습니다.

발행처

한국해양진흥공사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마린시티2로 38,
C1동 4층~7층 (우동, 해운대아이파크)
T. 051-795-1500



<비타민 SEA> 소식지는 QR코드 또는 한국해양진흥공사 홈페이지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www.kobc.or.kr



Theme

위기와 극복, 그리고 도약
역동하는 5주년을 보내며



스페셜 1

2023년, 그해 우리는
-올해의 신규 사업들



스페셜 2

과거에서 미래까지, 다시 그린 인류항해사
-미디어전시 '시대를 항해하다'



바다로 잇는 NEWS

SEA THE Future



KOBC는 지금

'해양강국 대한민국' 달성을 위해 하나된 우리!
-해진공 사업운영본부 워크숍



같이 가치海

선주 '안토니오'와 금융공급업자 '사일록'의 이야기
-윌리엄 셰익스피어 '베니스의 상인'



해운 INSIDE

대한민국의 해양 시민운동을 이끌어온 해양수산계의 대부
-부산항발전협의회, 부산항을사랑하는시민모임,
부산시민단체협의회 박인호 공동대표



알쓸신海

심신을 다독이는 바다, 해양치유



부산 핫스팟

든든한 한 해 마무리, 식도락 길을 걷다
-전포 골목들, 수안동 꼬리단길, 서동미로시장 등



바다, 문화

눈이 가득, 설경이 아름다운 영화
<설국열차> <이터널 선사인>
<레버넌트: 죽음에서 돌아온 자> <헤이트풀8>

32

직장인 공감Talk

알찬 연말 마무리를 위한 도움말

34

KOBC NEWS

이모저모 해진공

36

Clean KOBC

KOBC 청렴 윤리 활동 소식
긴가민가 청탁금지법(사적이해관계자 신고 및 회피 기피 신청)
KOBC 청렴 스크린

38

Feel Sea Good

바다가 차린 식탁, Ocean recipe



독자 설문 조사에 참여해주세요!
1. <비타민 SEA>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콘텐츠와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2. 더 좋은 사보를 만들기 위해 <비타민 SEA>에 관한 자유로운 의견을 남겨주세요.
※참여기간: 2024년 1월 31일까지
※소중한 의견을 보내주시는 30분께 음료 기프트콘을 드립니다.

위기와 극복, 그리고 도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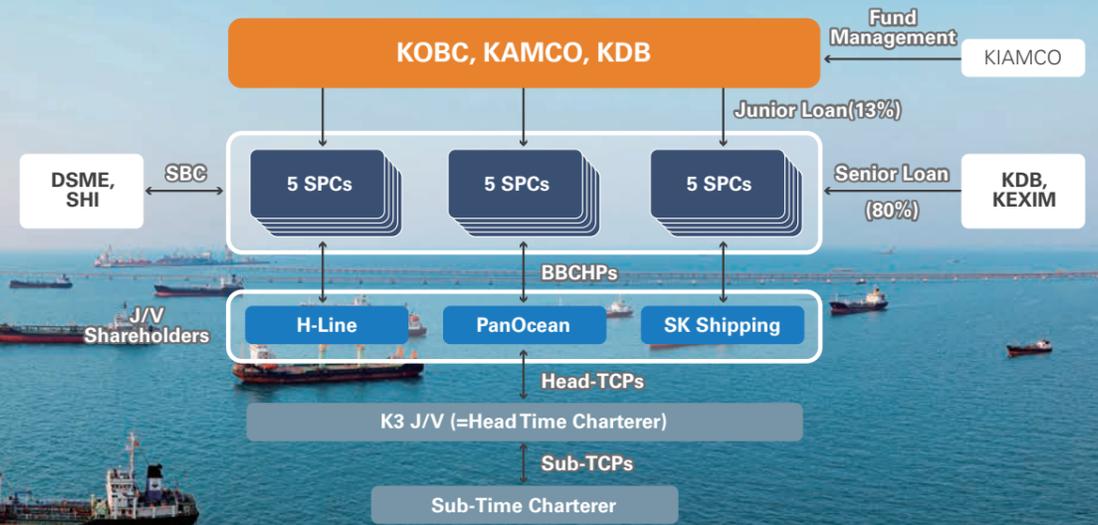
역동하는 5주년을 보내며

2023년, 어느덧 창립 5주년을 맞이한 KOBC.

역경의 파도가 치지 않은 바다는 이제껏 없었다.
시시각각 돌출하는 위기로 불안정한 상황에 맞서
KOBC는 「한국해양진흥공사법」 개정이라는 초석 위에 첫발을 내딛었다.

KOBC와 대한민국 해양산업 앞에 펼쳐진 새로운 길,
해양강국으로의 도약이 시작된다.

01 세계를 무대로



4월 12일

카타르 LNG운반선 계약 '올해의 딜' 선정

2022년 공사가 지원한 카타르 LNG 운반선 투자 건이 세계적인 선박 금융 전문지인 마린머니(Marine Money)로부터 '2022년 올해의 딜(Deal of the Year)'에 선정되었다. 이는 2019년 'HMM 23,000TEU 12척', 2020년 'HMM 16,000TEU 8척' 지원에 이은 세 번째 수상이다.

해양수산부, 산업통상자원부, 외교부 등 정부 기관과 카타르와의 협력관계를 바탕으로 「코리아그린 LNG컨소시엄」에 참여한 국적선사의 LNG 선박 운영 경험과 공사를 비롯한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국내 정책금융기관과의 긴밀한 협업을 통한 공동 투자를 기반으로 LTV 비율을 93%까지 높여 이번 계약을 성공적으로 수주할 수 있었다.

이번 LNG 장기운송 계약은 국내 역사상 최대 규모의 선박금융 계약으로 국적선사가 벌어들일 대선수입이 약 6조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대규모 장기 프로젝트에 따른 해운-조선산업 상생 발전과 국적선사의 세계 LNG 운송 시장 점유율 확대를 통한 일자리 증가와 연관산업의 부가가치 창출 효과 또한 기대된다.

4월 24일

3억 달러 글로벌본드 발행 성공

올해는 공사 창립 이후 최초로 5년 만기 미달러화 표시 3억 달러를 발행한 해이기도 하다. 해운시장은 미달러로 결제되는 국제금융의 성격을 지닌다. 공사는 올해 글로벌본드 데뷔 발행에 성공하며, 환위험에 노출된 국적선사들의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달러 금융지원의 기반을 마련하였다. 또한 외화 채권 발행을 통해 외화자금 조달 방안을 다변화할 수 있게 되어, 향후 국적선사들의 달러 수요에 대응하고자 한 것이다.

최종 주문은 29억 달러 이상이었으며, 장중 31억 달러를 돌파하는 등 글로벌 투자자의 뜨거운 관심을 몸소 느낄 수 있었다. 투자 주문은 아시아 및 유럽지역의 은행과 자산운용사, 보험사 등 안전자산을 선호하는 기관에서 집중되었으며, 지역별로는 아시아 89%, 유럽 11%였다. 약 10배에 달하는 높은 청약배수로 최종 발행금리는 최초 금리 대비 30bp(0.30%) 축소되었으며, 공사 데뷔 발행임에도 불구하고 신규 발행 프리미엄 없이 발행에 성공하였다.

9월 19일

1,000억 원 규모의 포모사 본드 발행 성공

공사는 대만 투자자를 대상으로 총 8천만 달러, 한화 약 1,000억 원 규모의 포모사 본드(Formosa Bond) 발행에 성공했다. 포모사 본드란 대만 금융시장에서 대만 달러가 아닌 다른 국가의 통화로 발행되는 채권이다. 이번 사모채권의 성공적 발행을 위해 대만 투자자들을 직접 방문하여 대면 방식의 투자설명회를 진행하였고 대한민국 해운시장에서 공사의 위상과 우수한 신용등급, 정부의 적시 지원가능성을 집중적으로 설명하여 투자자들의 참여율을 높였다. 이러한 노력으로 국책은행이 발행한 외화 공모채권의 금리와 유사한 수준인 SOFR(Secured Overnight Financing Rate) +97bp 수준까지 경쟁적인 금리 조건을 이끌어냈다.

2023년, 그해 우리는

올해의 신규 사업들

코로나 팬데믹19 해제와 더불어 글로벌 경기 침체, 인플레이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대내외적 요인들로 인한 어두운 정세 속에서 한국해양진흥공사는 우리나라 해운산업 안정화를 위해 온 힘을 다하고 있다. 대한민국 해양산업 중심에 있는 공사에게 위기가 끊이지 않는 2023년은 더욱 바쁜 한 해였다.

가까운 미래에 올해를 다시 돌아본다면, 그해 우리 해양산업은 어땠을까. 세계를 무대로 글로벌 역량을 펼쳤고, 탄탄한 기반을 마련했으며, 지역사회와 더욱 가까워지는 한 해였다고 기억되지 않을까. 해양산업의 위기 극복을 위해 2023년 새롭게 시작한 사업에 대해 알아보자.

02 탄탄한 기반 마련

6월 27일

해운산업 위기대응펀드 출범

공사는 해양수산부와 함께 본격적인 저시황기 진입과 친환경 규제 강화에 앞서 선제적으로 최대 1조 원 규모의 위기대응 펀드를 조성하였다. 위기대응 펀드는 크게 '해운산업 구조조정 지원 펀드'와 '국적선사 환경·사회·투명경영(ESG) 지원 펀드'로 구성된다. 펀드는 각 2,500억 원, 최초 총 5천억 원 규모로 출범하며, 향후 투자자 유치와 국적선사의 투자 수요에 따라 최대 1조 원 규모로 확대해나갈 예정이다. 펀드 조성을 통해, 국적선사에 부여된 세제 혜택(톤세제 활용으로 절감된 법인세 일부)과 HMM 구조조정을 위한 공적자금 지원의 성과(공사의 배당금 수입 등)가 중소·중견 선사의 경쟁력 강화에 다시 투입되는 해운산업의 자생적 성장 생태계를 구축하고자 한다.

해운산업 구조조정 지원 펀드

주요 사업: 부실 징후 및 경영위기 발생 시, 사전·사후 구조조정 또는 국적선사 간 인수합병(M&A) 지원 등
기대 효과: 경영위기 발생 전 선제적 구조조정으로 국적선사의 핵심 자산의 저가 매각을 방지

국적선사 환경·사회·투명경영(ESG) 지원 펀드

주요 사업: 국적 중소선사의 친환경 선박 확보 지원, 국적선사가 발행하는 녹색채권 인수 지원 등
기대 효과: 중소선사의 친환경 선대 확보를 중심으로 지원하여, 국제 해운 탈탄소 규제에 적극적인 대응 가능

10월 6일

「한국해양진흥공사법」 개정안 본회의 의결

「한국해양진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 이로써 공사는 국내외 항만개발사업, 해외 항만물류사업 및 선박연료공급업 등의 항만운송관련사업에 대한 투자와 채무보증 관련 금융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게 되었다. 해당 법률안은 국무회의 및 대통령 재가 등의 절차를 거쳐 최종 공포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을 통해 공사는 항만개발사업에 대한 투자보증이 가능해졌다. 한진해운 파산 이후 잃어버린 국적선사의 주요 거점 지역 자영 터미널 확보를 지원하고 국적선사 및 화주기업의 물류비 절감에 기여하고자 한다. 영세성 등으로 선박 신조에 어려움을 겪는 선박연료 공급업자에 대한 금융지원도 가능해져 금융선의 대형화 및 현대화에도 앞장설 수 있게 되었다.



03 더욱 가까워지는 해진공

7월 5일



한국해양진흥공사

한국해양진흥공사 CI 리뉴얼

공사는 창립 5주년을 맞아 CI를 리뉴얼했다. 기존 선박금융 위주의 사업에서 항만터미널, 물류시설 등 해양 인프라 전반까지 사업 영역을 확장하고자 하는 공사의 의지를 반영한 것이다.

신규 CI 디자인은 영문 이니셜인 KOBC 알파벳을 뒤편으로 띠를 모티브로 배치하였다. 무한대 기호를 시각화하여 바다의 무한한 가능성, 해운산업의 역동성, 그리고 그사이를 든든히 지탱하는 한국해양진흥공사의 무궁무진한 미래를 담아내었다. 또한 'O'와 'B'가 이어지는 형태를 통해 해양항만물류기업과의 지속적인 결속과 협력, 공존을 표현하고, 안정과 신뢰, 청렴과 발전을 상징하는 블루컬러를 통해 해양금융의 리딩브랜드로 거듭나고자 하는 의지를 담았다.

11월 7일

미디어아트 「시대를 향해하다」 전시관 개관

공사는 국립해양박물관에 미디어아트 「시대를 향해하다」 전시관을 개관하였다. 이번 미디어아트 전시 콘텐츠는 공사가 진행하는 사회공헌사업의 일환으로 미디어아트를 통해 해운항만 산업의 중요성과 바다의 보편적 가치를 알리고 미래세대의 해양 문화예술 체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11월 6일 개관식을 열고, 다음날인 7일부터 상설 전시를 통해 지역 아동, 청소년을 비롯한 일반 시민들이 자유롭게 관람할 수 있도록 무료로 공개하고 있다.

이번 전시의 일부분은 지난 7월 말부터 시범 전시를 통해 대중에게 사전 공개한 바 있으며, 해양산업에 관한 단순 정보 제공이 아닌 예술적인 경험을 통해 간접적으로 체험하게 함으로써 효과적으로 해운항만을 소개한 점에서 대중들에게 큰 호평을 받고 있다.



* 더욱 자세한 내용은 '스페셜2' 기사를 참고해주세요.



과거에서 미래까지, 다시 그린 인류항해사

미디어전시 「시대를 향해하다」

11월 7일 국립해양박물관에서 명화풍의 아름다운 색채와 웅장한 사운드로 눈길을 사로잡는 새로운 전시가 문을 열었다. 바로 한국해양진흥공사의 미디어전시 「시대를 향해하다」이다. 단순한 정보 제공에서 벗어나 인류가 바닷길을 개척해온 과정을 예술적으로 담아낸 인터랙티브¹⁾ 콘텐츠로 대중의 호평이 이어지고 있다. 이번 주말, 가족과 함께 거대 범선을 배경으로 인증샷을 남겨보는 건 어떨까.

해양과 미디어·디지털 기술의 만남

지난 11월 6일, 국립해양박물관 대강당에서 미디어전시 「시대를 향해하다」의 개관식이 열렸다. 「시대를 향해하다」는 별자리를 바라보며 바닷길을 찾던 오랜 과거부터 스마트항만 등 미래의 모습까지 담아낸 8분 남짓 길이의 미디어아트다. 지역 아동과 청소년을 위한 사회공헌 활동의 일환으로 해양산업의 낮은 인지도를 개선하고자 미디어아트를 활용하여 미래세대에게 해양산업의 중요성을 재미있고 흥미롭게 알리는 것을 목표로 한다.

공사는 국내 대표 해양문화공간이자 고급 학예인력을 보유한 국립해양박물관과의 MOU를 통해 전시 큐레이션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스크린 높이가 4.3m에 달하는 360도 서클비전²⁾과 바닥 전체에서 미디어 출력이 가능한 전시공간(미디어전시실1)을 활용하여 생동감 넘치는 해양 개척사를 재현하는 데 성공했다. 7월부터 10월까지, 콘텐츠 일부를 활용한 테스트베드를 운영하는 동안 아동과 청소년은 물론, 2030세대에게까지 폭발적인 반응을 얻었다. 블로그, 인스타그램 등 SNS에 아름다운 영상 비주얼을 자랑하는 전시 인증샷이 줄지어 업로드되고 있다.

인류의 해양개척사를 예술로 재구성하다

공사의 첫 미디어아트 프로젝트 「시대를 향해하다」는 해운업의 역사와 해양에 대한 시대변화상을 주제로 공사의 다양한 사업을 녹여낸 스토리를 3개의 섹션과 4종의 인터랙티브 체험물로 구성하였다. 여기에 국립해양박물관의 주 관람객인 아동과 청소년이 해양을 더욱 친근하게 느낄 수 있도록 해양 연령층의 선호도가 높은 선박과 해양 동물을 오브제로 활용하였다.

원형 전시장에 들어서면, 벽면을 가득 채우는 대형 선박과 고래의 거대함이 시각과 청각을 자극한다. 바닥에 펼쳐진 푸른 플랑크톤과 별자리, 바닷속 해양생물들은 아이들의 움직임에 따라 자연스럽게 흩어졌다 모이기를 반복하며 전시의 생동감을 극대화시킨다.

그뿐만 아니라 인상주의 화가 고흐의 작품 「별이 빛나는 밤」과 빛의 화가로 알려진 모네의 「해돋이」를 모티브로 하여 아름다운 바닷가 정경을 익숙하면서도 회화적으로 구현하였으며, 자연의 경이로움을 담은 장면도 영국의 대표 낭만주의 화가인 윌리엄 터너의 화풍을 빌려 한층 예술적으로 표현하였다.

1) 'Inter-'와 'Active'의 합성어로 '상호활동적인', '양방향의'라는 의미

2) 영상시스템의 하나로 360도 전 방향 원형 스크린에 프로젝션 기술을 통해 화면을 영상하는 방식, 또는 9대의 카메라로 촬영한 영상을 360도의 원형 스크린에 9개의 화면으로 나타내는 영화 기법



국립해양박물관 운영 안내

입장료	무료
주소	부산 영도구 해양로301번길 45
평일	09:00~18:00(마감 30분 전까지 입장 가능)
토요일	5~8월 09:00~21:00, 9~4월 09:00~19:00
일요일 및 공휴일	09:00~19:00(설날 추석 익일, 어린이날, 광복절 09:00~21:00)
매주 월요일	휴관(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 평일에 휴관)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을 향해하다



파트 1: 범선의 시대, 별자리를 향해

천문항법을 상징하는 별자리, 북두칠성이 나타난다. 이어 별빛 가득한 낭만적인 밤하늘과 한자 코그선을 시작으로 캐릭선, 갤리온선 등 대항해시대 선박들의 왕래가 이어진다. 먼 곳에 펼쳐진 이국적인 도시 풍경이 15세기 무역과 항해로 인해 시장 시스템이 발달했던 과거 시대를 생생하게 소환한다.



파트 2: 증기선의 시대, 등대를 향해

급변하는 시대를 상징하는 비바람과 거센 파도가 휘몰아치며 긴장감을 고조시키고, 증기선은 별빛이 아닌 등대의 빛을 따라 묵묵히 나아간다. 바닥에 질게 깔린 안개가 관람객의 발걸음에 흠뻑 젖는다. 산업혁명 시기, 증기기관은 인류와 해운의 효율에도 큰 영향을 미쳤지만 화석 연료로 인해 대기 오염 등 많은 부작용을 낳았던 시대였음을 은유적으로 드러낸다.



파트 3: 친환경 선박의 시대, 미래를 향해

안개가 걷히고 미래의 바다가 도래한다. 공해를 최소화한 친환경 선박들이 지나가고, 맑고 푸른 바닷속으로 들어가 가오리와 거북이 등 해양생물들과 놀면서 지속가능한 해양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는 기회를 갖는다. 물 밖으로 다시 나왔을 때 불꽃놀이가 펼쳐지는 아름다운 미래 해양도시의 밤모습이 펼쳐진다. 도시로 점점 다가가면서 항해는 마무리된다.

미디어전시 「시대를 향해하다」는 11월 7일부터 국립해양박물관을 찾는 시민 누구나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울거울, 가족과 친구와 함께 국립해양박물관에서 시대의 상징을 담은 아름다운 영상미와 인터랙티브 콘텐츠의 재미를 직접 즐겨보길 추천한다. 이번 전시를 통해 미래 인재들이 해운항만산업과 지속가능한 해양환경의 중요성에 한발 가까이 다가갈길 기대해본다.

전시 「시대를 향해하다」 기획 비하인드 스토리



Q.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ESG경영실 홍보팀 박성민 대리입니다. 이번 해양산업 미디어아트 전시 프로젝트에서 전시 기획, 콘텐츠 스토리 구성과 개막행사를 맡았습니다.

Q. 전시 「시대를 향해하다」를 간단히 소개해주세요.

「시대를 향해하다」는 인류에게 바다를 장벽에서 길로 만들어 준 선박과 해운의 역사를 다룬 작품입니다. 360도

원형 벽면을 통해 목선, 갤리온선, 컨테이너선 등 다양한 무역선들이 관람객 바로 옆으로 지나가는 현장감을 제공하고, 파트마다 바뀌는 인터랙티브 등으로 해양사를 실감 나고 재미있게 즐길 수 있는 미디어전시입니다.

Q. 전시 「시대를 향해하다」는 어떻게 기획되었나요?

한국해양진흥공사가 3년간 진행하는 해양산업 미디어아트 프로젝트 중 첫 번째 전시로 지역 아동과 부산을 방문하는 가족들에게 해양산업의 중요성을 전달하고 행복한 추억을 선사하는 문화 콘텐츠를 제공하고자 기획되었습니다.

지역사회에 수도권 대비 부족한 교육·문화 인프라를 사회공헌으로 강화하고, 동시에 공사의 사회공헌활동 인지도를 높이고 싶었습니다. '인류문명과 함께

한 해운'이라는 작품의 주제는 국립해양박물관을 방문하는 아이들이 범선과 같은 선박을 좋아한다는 학예사님 의견과 '인류사에 등장한 주요선박'을 다룬 외국 서적에서 영감을 얻었습니다.

Q. 전시를 준비하면서 기억에 남는 부분이 있다면요.

박물관 학예사님과 협업하며, 큐레이터 시선으로 전시를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미디어 콘텐츠 용량을 크게 설정할 수 있었지만, 전시관 바로 옆 수족관에 사는 해양생물들이 영향을 받지 않도록 조정했습니다. 작품 속 해수면 높이를 성인이 아닌 아이들의 눈높이에서 바라보았을 때 바다에 대한 공포감을 느끼지 않도록 높이를 낮추기도 하고요. 학예사님과 세심한 부분까지 살피며 전시를 준비하였습니다.

Q. 이번 전시의 특징을 알려주세요.

미디어전시 관람 시 멀미나 어지럼증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를 줄이고자 인상주의 화풍을 활용한 그래픽 위치를 고정해 연출했습니다. 그리고 바닥 인터랙티브 요소를 모든 장면에 도입해 다양한 실감 체험을 할 수 있도록 만들었어요. 바닥면에 나타나는 해양동물들이 관람객들을 따라 움직여 아이들이 동물들과 어울려 놀 수 있도록 설계했죠.

밤하늘 별자리에서 항해와 작품이 시작(파트 1)되고, 불꽃놀이가 펼쳐지는 미래도시의 밤하늘(파트 3)에서 항해가 끝납니다. 산업혁명과 환경 오염을 다룬 부분(파트 2)에서는 유일하게 해양생물이 등장하지 않아요. 이러한 디테일과 함께, 전시를 보고 나오는 길에 작품 설명을 읽어본다면 해운산업과 친환경 해양의 의미가 다시금 새로이 다가올 것입니다.

SEA THE FUTURE



헬레닉쉬핑뉴스

S.Korea tops global shipbuilding orders in October, surpassing China

한국, 전 세계 선박 수주 1위 되찾아

2023년 10월의 조선 수주량 세계 1위 국가는 한국인 것으로 나타났다.

해운분석기관 Clarksons Research에 따르면 올해 10월 전 세계 선박 발주량은 249만 CGT로 작년 10월 발주량 대비 44% 감소했다. 이 중 한국은 154만 CGT로 전체 발주량 중 62%를 차지했다. 2위는 중국으로 82만 CGT를 수주했으며 비중은 33%였다. 척수 기준으로는 한국과 중국이 각각 18척과 34척의 선박을 수주했다.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전 세계 선박 누적 수주량은 총 3,369만 CGT, 1,324척으로 전년 동기 대비 24% 감소했다. 이 중 한국과 중국의 수주 실적은 각각 893만 CGT(184척, 27%), 1,933만 CGT(832척, 57%)를 기록했다.

올해 10월 말 기준 글로벌 총 선박 수주 잔량은 9월 말 대비 41만 CGT 감소한 총 1억 2,258만 CGT를 기록했다. 국가별로는 중국이 5,906만 CGT(48%), 한국이 3,868만 CGT(32%)를 차지하고 있다. 한편 클락슨 신조선가 지수는 176.03포인트를 기록해 전년 동월 대비 14.06포인트 높게 형성되고 있다.



TradeWinds

MSC keeps big recycling lead over closest top-five liner rivals

올해 대형 정기선사 선박 해체, MSC가 선두

올해 MSC는 선박 해체에 있어 전 세계 상위 5개 컨테이너선 경쟁사 중 선두를 달리고 있다고 TradeWinds 측은 보도했다.

최근 MSC는 2,880 TEU급 MSC Levina (1989년 건조)를 선박 해체를 위해 매각했는데 해당 선박은 올해 MSC가 선박 해체를 위해 매각한 13번째 컨테이너선이다.

이에 비해 다른 상위 4개 컨테이너선 선사들의 선박 해체 수준은 다소 미미한 수준이다. 올해 에버그린과 머스크는 각각 2척을 선박 해체를 위해 매각했으며, 코스코와 CMA CGM은 단 한 척도 선박 해체를 위해 매각하지 않았다.

이는 노후선과 신조선으로 선대를 구성하여 시장 변동에 대비할 수 있는 헤지 전략을 장기간 유지해온 MSC의 전략 덕분이라고 TradeWinds 측은 말했다. 반면, 다른 경쟁사들은 비교적 선령이 낮은 선박만 소유하고 있으며 보통 용선 선박을 통해 선대 강도를 조정한다고 말했다.



헬레닉쉬핑뉴스

Capesize order book slips to 5% of fleet as contracting falls

케이프사이즈 수주잔량, 현존 선대 중 5%에 불과

발틱국제해사협회 BIMCO에 따르면 올해 10월 초 기준 현재 케이프사이즈 수주잔량은 2,000만 DWT로 현존 선대 중 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케이프 사이즈 선박의 신조발주량은 2013년에 정점을 찍은 이후 서서히 감소했으며 올해는 500만 DWT 수준으로 전년 동기 대비 4% 감소하였다.

이처럼 케이프사이즈 수주잔량이 적은 이유는 낮은 건화물선 운임과 선대 자체가 젊기 때문이라고 BIMCO 측은 언급했다. 케이프사이즈 선박의 평균 선령은 전체 건화물선의 평균 선령보다 2년 정도 낮으며, 선령이 14년 이상 된 케이프사이즈 선박은 전체 비중의 15%인 5,400만 DWT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BIMCO 측은 케이프사이즈 선박의 경우 무역 항로 수가 중소형선 대비 많지 않아 대체 연료 사용전환 가능성이 더 높을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케이프사이즈의 수주잔량 중 55%는 LNG, 메탄올, 암모니아와 같은 대체 연료를 사용하거나 향후에 대체 연료 추진선으로 전환가능한 선박들이므로 대체 연료 사용 추세를 이끌어 나갈 선두주자로 부상할 수 있다고 말했다.



Reuters

World oil, gas, coal demand to peak by 2030, IEA says

세계 화석연료 수요, 2030년 정점 전망

국제에너지기구(IEA)에 따르면 전기차 사용 확대, 중국 경제 둔화, 청정 에너지 전환에 대한 글로벌 기조에 따라 세계 화석 연료 수요는 2030년에 정점에 달할 것이라고 로이터 통신은 보도했다.

IEA는 2030년까지 전기차 수가 지금보다 10배 가까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며,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과 같이 청정 에너지 사용을 지원하는 정책이 미래의 화석 연료 수요를 압박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에너지 수요 성장의 핵심 공급원으로서 중국의 역할이 변화하고 있다고 IEA는 말했다.

지난 10년간 중국은 전 세계 석유 사용량 증가분의 약 3분의 2를 차지했지만 경제 성장 모멘텀이 점점 약화되고 있고, 대신 중국은 2022년 전 세계 전기 자동차 판매량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등 청정 에너지 강국으로 자리매김했다고 덧붙였다.

IEA는 에너지 전환의 핵심은 화석 연료보다 청정 에너지 시스템에 대한 모든 투자를 확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로이드리스트

Boxship age profile edges up

전 세계 컨테이너선 평균 선령, 사상 최고치 수하

BIMCO 측에 따르면 전 세계 컨테이너선 선단의 평균 선령이 14.2년으로 역대 최고 수준에 도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화물선 선단의 평균 선령은 11.9년, 유조선 선단의 평균 선령은 12.8년이다.

컨테이너선의 평균 선령은 2010년 9.9년으로 최저점을 기록한 이후 4.3년이 증가했는데, 2010년 이후 해체량이 신조선 인도량보다 적게 이루어졌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현재 컨테이너선 선단 중 20%는 선령 20년이 넘는 선박들이다.

한편, 로이드리스트에 따르면 정기선사들은 기존 설계된 수명을 훨씬 넘긴 노후선들을 계속 거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 세계 컨선 선대 중 선령 25년 이상(500 TEU 초과) 선박 수는 409척이며 총 751,500 TEU에 달하며 선령 40년을 넘은 선박도 여전히 거래되고 있다고 전했다.

BIMCO 측은 2021년 당시 코로나19 봉쇄 조치로 인한 컨선 호황 때에는 이러한 노후선들도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지난 15개월 간 컨선 시장은 약세를 지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1~9월 컨선 누적 해체량은 57척으로 지난 10년 동기 평균 해체량 81척보다 적었다고 덧붙였다.



Platts

INTERVIEW: Panama Canal faces prolonged impact from El Nino, climate change

점점 거세지는 파나마 운하 통항 제한

파나마 운하는 기후 변화로 인한 엘니뇨 영향으로 전례 없는 가뭄에 직면해 있으며, 이는 앞으로 몇 달 동안 파나마 운하를 통과하는 물동량에 타격을 줄 수 있다고 파나마 운하 당국 CEO는 말했다.

파나마 운하 당국 발표에 따르면 파나마 운하의 일일 통항량은 기존 32척에서 11월 1일부터 31척(대형 네오파나막스 9척, 파나마막스 22척)으로 제한된다. 나아가 11월 3일부터는 25척, 11월 7일부터는 24척, 12월 1일부터는 22척, 내년 1월 1일부터는 20척, 그리고 2월 1일부터는 18척으로 통항량 제한 강도가 점점 심해진다.

통항 제한 조치는 당국의 강우량 예보를 기반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3~4주 전에 선사들에게 추가 변경 사항을 통보할 것이라고 당국 관계자는 말했다.

한편, 올해 파나마의 건기가 11월 하순에 시작되는데 강우량이 증가하지 않는 한 당국의 통항 제한 조치는 계속 유지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컨테이너선의 경우 육상 운송이 가능한 일부 화물들은 중미 지역에 양항할 수 있지만, 건화물선은 다른 항로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해양강국 대한민국' 달성을 위해 하나된 우리!

해진공 사업운영본부 워크숍

사업운영본부는?

선주사업, 컨테이너 및 항만물류인프라 금융을 담당하는 해양금융1부와 중견 및 중소선사의 금융을 담당하는 해양금융2부, 다양한 해운정책사업을 하는 정책지원부까지 '사업운영본부'는 그 명칭에서 알 수 있듯 고객과의 접점에서 해진공의 다양한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본부이다.



지난 10월, 공사 태평양회의실에서 제1회 사업운영본부 워크숍이 개최되었다. 사업운영본부는 본부의 중점추진과제를 알리고 우수사원을 포상하는 등 구성원 간 소통의 기회를 확대하고 소속감을 고취하고자 분기별로 본부 자체 워크숍을 추진하고 있다. 재미와 소통, 알찬 교육과 상품까지! 웃음과 열정이 함께한 워크숍 현장으로 가보자.

13:30~ 서로 더욱 가까워지는 아이스 브레이킹 퀴즈

같은 본부지만 아직 서로를 잘 모르는 직원들을 위해 '해진공오락실' 퀴즈 시간이 마련되었다. MBTI와 취향, 공사 유튜브 출연자 등 가벼운 문제를 풀며 서로 더 가까워지는 시간을 보냈다. 센스 있는 문제와 웃음 유발 사지선다 항목, 퀴즈 경품으로 분위기가 서서히 무르익기 시작했다. 재미는 물론 특별퀴즈를 통해 본부 소속 부장님들의 이력과 전문분야를 상기하며, 사업운영본부의 전문성을 또다시 체감할 수 있도록 구성된 시간이었다.

워크숍 참석자 한 마디

선주사업팀 박수빈 대리: 특별퀴즈를 통해 부장님들의 화려한 경력을 보면서 다양한 분야에서 멋진 길을 걸어오신 부장님들께 일을 배울 수 있다는 큰 행운을 다시금 깨달았습니다.

중견선사금융1팀 박재영 사원: 다른 팀의 업무와 팀원을 잘 몰랐는데 워크숍으로 친밀감이 생겼습니다. 저와 관련된 문제가 나와 살짝 부끄럽기도 했습니다. (웃음)

13:50~ 공사 홍보영상 시청 & 본부 중점추진과제 알기

홍보팀으로부터 전격 입수! 막 완성된 따끈따끈한 홍보영상을 함께 시청하였다. 아이스 브레이킹으로 약간 지끈해진 분위기가 일순 조용하고도 뜨겁게 달아오르기 시작했다. 영상에서 흘러나오는 공사의 눈부신 실적과 성과에 모두의 시선과 마음이 집중되었다.

이어 사업운영본부 중점추진과제를 알아보면서 하나의 팀으로서 본부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알아보았다. 공사의 비전과 미션, 경영목표에 맞춰 마련한 본부의 추진과제와 각 팀의 추진과제가 어떻게 유기적으로 작용하는지 파악하며, 공사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는 하나된 팀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되새겼다. "목표 달성도 중요하지만, '상호존중'하며 '성장'해 나가야 한다"는 본부장님의 당부 말씀으로 더욱 여운이 길게 남는 뜻깊은 시간이 되었다.

워크숍 참석자 한 마디

컨테이너금융팀 이상훈 과장: 공사가 그동안 차근차근 이루어낸 성과만큼이나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 더 많은 것을 이루어나갈 역동적인 조직으로 성장할 미래가 느껴졌습니다.

15:25~ 집현전 및 연구원 소개

고려부터 조선 초기까지 운영되었던 학문연구기관 집현전과 지퍼를 잠근다는 'Zip'에서 착안해, 지식을 모아 모아 지식보따리를 만든다는 의미를 담은 사업운영본부의 '집현전'. '집현전'은 사업운영본부에 발령받은 직원의 업무 어려움을 해소하고, 본부 전체의 업무능력 향상 평준화와 더불어 각 업무의 표준화를 위해 결성되었다. 집현전을 이끌어갈 선주사업팀 박수빈 대리를 포함하여, 각 팀의 인재들이 격주 단위로 모여 본부 내 교육 발굴, 아라온 시스템 점검, 업무 미비점 개선 등 업무 표준화를 위해 힘쓸 예정이다.

집현전 연구원 소개 연구원들에게 많은 응원의 말씀 부탁드립니다, 새롭게 거듭날 사업운영본부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부서명	팀명	직급	성명
해양금융1부	선주사업팀	5급	박수빈
	컨테이너금융팀	5급	백재민
	항만물류금융팀	6급	이재원
해양금융2부	중견선사금융1팀	5급	정태호
	중견선사금융2팀	5급	정예솔
	중기상생금융팀	5급	손병희
정책지원부	정책지원팀	4급	한세희
		5급	양노아

15:45~ 우수사원 포상

워크숍의 마지막 식순으로 우수사원 포상이 진행되었다. 불철주야 고생하는 본부 구성원의 노고에 감사를 전하기 위해, 사업운영본부는 분기마다 우수사원 3명을 선정하여 포상을 지급할 계획이다. 업무 난이도 및 경력 측면을 고려하여 선정되되, 우수사원 3명 중 1명은 6급 사원에 한정하여 다양한 직급의 사원에게 우수사원 포상의 기회를 주고자 한다.

사업운영본부 우수사원 소개

정책지원팀 한세희 과장: 그저 부끄럽고 민망하고 죄송하고 감사한 마음입니다. 사업운영본부 일원으로서 본부에 폐가 되지 않고,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중견선사금융2팀 정예솔 대리: 할 일을 했을 뿐인데 이렇게 포상을 주시다니! 저에게 시간과 지식을 아낌없이 나누어주셨던 모든 분 감사드립니다~!

항만물류금융팀 이재원 사원: 입사 만 2년이 되는 시기에 뜻깊은 상을 받게 되어 영광입니다. 앞으로 항만물류금융의 확대와 공사의 발전에 더욱 기여하겠습니다.

기념사진 촬영을 마지막으로 제1회 사업운영본부 워크숍이 종료되었다. 세계를 선도하는 해양금융의 리더, 한국해양진흥공사 사업운영본부의 활약을 기대해본다.

선주 '안토니오'와 금융공급업자 '샤일록'의 이야기

윌리엄 셰익스피어 「베니스의 상인」

한국해양진흥공사 정영두 ESG경영실장

※ 간단 줄거리 ※



「베니스의 상인」은 16세기 글로벌 교역과 금융의 중심지 베니스를 배경으로 선주 '안토니오'와 유대인 금융공급업자 '샤일록' 간의 갈등을 그리고 있다.

안토니오는 친구 '바사니오'에게 부유하고 아름다운 상속녀 '포셔'에게 구혼할 자금을 빌려주겠다고 나선다. 하지만 충분한 자금이 없었던 안토니오는 금융공급업자 샤일록에게 '심장에 가까운 살 1파운드'를 담보로 제공하는 내용의 금융계약서에 서명하게 되고, 바사니오는 포셔와의 약혼에 성공하지만 안토니오의 선박 3척이 모두 침몰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는데...

이로 인해 안토니오는 상황기일을 넘기게 되고, 샤일록은 기다렸다는 듯 담보권 실행(안토니오의 살 1파운드)을 요구한다.

이에 포셔가 법관으로 위장하여 '살을 가져가되 단 한 방울의 피도 흘리면 안된다'는 판결을 내리면서, 도리어 샤일록이 전 재산을 몰수당할 위기에 처하게 된다.

1 안토니오의 잘못

선주 안토니오의 잘못 '리스크 관리 실패'

셰익스피어는 안토니오를 선량한 피해자로 묘사하고 있으나 필자의 생각은 다르다. 안토니오는 샤일록이 유대인이라는 이유로 수염에 침을 뱉고, 발로 차고, 개라고 부르는 등 철저하게 멸시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것으로 미루어 짐작해 볼 때 그는 좋은 성품의 소유자라고 보기 어렵다. 그의 사고방식 역시 합리적이지 못하다. 그는 단지 친구라는 이유로 성공 여부가 매우 불투명한 사업(부유한 상속녀와의 결혼)에 아무런 조건 없이 3천 다카트(현재 가치로 약 8억 원)의 막대한 자금을 빌려주는, 섣뚱 납득하기 어려운 선택을 한다.

그러나 그의 가장 큰 문제점은 사업가로서 그의 리스크 관리 능력이다. 그는 자산 포트폴리오 다각화를 통한 리스크 헷징을 전혀 하지 않았다. 트리폴리, 인도, 영국에서 항해중인 3척의 선박 외 그 어떤 현금성 자산도 보유하지 않았기에 부득불 평소 경멸해 마지않던 샤일록에게 용자를 받아야만 했던 것이다.

여기서 끝이 아니다. 더 큰 문제는 따로 있었으니, 바로 그가 샤일록과 체결한 금융계약의 리스크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리스크를 정확하게 측정하기 위해서는 사고 발생의 빈도와 사고가 발생했을 때 생기는 피해 규모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 정리하면 '리스크 = 사고발생빈도 × 사고발생시 피해규모'인 것이다.

이러한 관점으로 안토니오가 서명했던 금융계약서를 다시 살펴보자. '채무불이행 시 심장과 가까운 살 1파운드 제공'이라는 조건은 목숨을 담보로 하는 계약으로 해석되어 사고발생 시 피해규모는 무한대가 된다. 그렇기에 해당 계약서에 서명하는 것은 곧 자살행위와 다름없다. 그러나 안토니오는 희박한 발생빈도에 의탁해 피해규모를 고려하지 않은 채 해당 계약서에 서명하였고, 사고가 발생하게 되자 그 즉시 '1×∞=∞'가 되어, 친구를 위해 빌려준 3천 다카트로 인해 생사의 기로에 서게 된 것이다.

리스크의 측정과 관리에 실패한 선주 안토니오는 사업가로서 자격이 없다. 그가 샤일록에 의해 큰 곤경을 당하게 된 것은 그가 자초한 일이라 보인다.

금융공급업자 샤일록의 문제적 '물인정과 과욕'

샤일록은 왜 선박 대신 안토니오의 살 1파운드를 담보로 잡았을까?

작품 전반에 묘사되는 샤일록의 모습에 비추어 볼 때, 이는 안토니오에 대한 단순한 악감정에 기인하기보다는 경쟁자 제거를 통한 시장점유율 확대에 목적이 있었다고 보인다.

자신의 외동딸이 바사니오의 친구에게 반해 자신의 돈과 보석을 훔쳐 달아났을 때에도, 딸이 죽어도 좋으니 돈과 보석만큼은 꼭 되찾았으면 좋겠다고 말하는 지나치리만큼 이해타산적인 냉혈한이 아니었던가.

안토니오는 샤일록이 영위하는 금융공급업의 걸림돌이었다. 안토니오가 자신이 사업을 통해 벌어들인 돈을 주변 사람들에게 무이자로 빌려주면서, 샤일록이 구축해 놓은 금융시장의 원칙에 금이 가기 시작한 것이다.

재판정에서 안토니오의 원금의 300% 상환 제안을 거절한 것은 원금의 300% 가치보다 안토니오를 제거함으로써 시장점유율 확대를 통한 장기적 이익이 더 크다고 판단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법정에서 안토니오의 살 1파운드를 계속 고집했던 샤일록은 자신의 과욕으로 인해 전 재산을 잃어버릴 위기에 처하게 된다.

2 샤일록의 물인정과 과욕

3 사람을 살리는 금융

안토니오와 샤일록이 한국해양진흥공사에 던지는 시사점 '사람을 살리는 금융'

간혹 앞으로의 시황이 너무 확실하다는 신앙에 가까운 확신으로 모든 자산을 걸고 대규모 장기용선이나 신조발주 등의 모험을 하겠다는 선사 경영진을 만나게 된다. 그럴 때면, 소설 속 법정에서 샤일록의 칼 앞에서 떨고 있는 안토니오의 모습이 떠오르며 슬퍼진다.

한편, 금융 논리가 지나치게 앞선 나머지 잃게 된 소중한 우리나라 선박과 항만 자산들을 생각하면 일정 부분 샤일록의 모습이 떠오르며 안타까움이 더해진다.

결국 핵심은 '사람을 살리는 금융'이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선사들의 리스크를 더욱 철저하게 분석하고 나아가 리스크 관리 가이드까지 해 줄 정도의 충분한 실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금융계약서를 항상 철저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교훈 또한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대한민국의 해양 시민운동을 이끌어온 해양수산계의 대부

부산항발전협의회, 부산항을사랑하는시민모임,
부산시민단체협의회 박인호 공동대표



“30여 년 해양시민운동을 이어갈 다음 세대를 기다린다”

.....

해양¹⁾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30년여를 시민운동에 조금이나마 이바지해왔다. 부산항을사랑하는시민모임, 부산항발전협의회, 부산시민단체협의회 등의 대표를 맡아 ‘해양수산부 폐지 반대’와 ‘해양수산부 부활 국민운동’, ‘한진해운 파산 저지 범국민운동’, ‘부산항만공사 설립 운동’과 당시 선박금융공사(한국해양진흥공사)를 만드는 운동에 앞장섰다. 2020년에는 그 노고를 인정받아 제14회 장보고대상 대통령상을 수상했다. 우리나라의 해양-해운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하며 ‘해양이 나라의 미래’라는 일념으로 투쟁해온 박인호 대표를 만나보았다.

Q. 본인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고, 북쪽은 막혀있다. 즉 도서 해양국가다. 따라서 세계로 뻗어나가기 위해서는 해양의 역할이 결정적이다. 대한민국의 힘은 해양에서 나온다. 하지만 해양에 대한 인식이 낮고 그 잠재력이 저평가되어있었기에 ‘나부터 해양 운동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시민단체 활동을 시작했다. 현재 부산항을사랑하는시민모임(항사모*)과 부산항발전협의회(부발협**), 신해양

강국 국민운동본부*** 등 대한민국에서 처음으로 해양국민운동을 조직한 여러 단체에서 대표직을 겸하고 있다. 어떠한 보상을 바라고 시작한 일이 아니기에 월급 한 푼, 정부 지원 한 번 받은 적 없지만, 내가 최초이자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는 아쉬움 속에 이 길을 걸어왔다.

* 부산항을사랑하는시민모임

시민과 친화적인 부산항으로 발전시키자는 취지로 발족된 전국 최초의 항만시민단체(정회원 2,300여 명)

** 부산항발전협의회

부산항만공사 설립을 주도한 한국 최대의 해양 정책운동단체로 현재 전국 200여 개 해양관련단체가 가입

*** 신해양강국 국민운동본부

‘해양으로 융성하는 우리나라’ 만들기 위한 국민운동 추진단체로 국내 해양전문가 및 50여 개 단체로 구성

“신해양경제: Blue Economy, 우리의 미래는 해양입니다”

.....

Q 해양수산부 설립을 위해 많이 애써주셨다

2008년부터 5년 동안, 해양수산부 폐지 반대 및 해양수산부 부활 국민운동을 진행했다. 여러 어려움에 부딪혔으나 인고의 시간 끝에 해양수산부가 부활했다. 끈질긴 투쟁 및 국민의 성원과 협조 속에 얻어낸 쾌거다. 다만 한 가지 아쉬운 것은 해양수산부가 분산 소부처로 부활되었다는 것이다. 현재 12개 부처에 해양과 관련된 다양한 기능이 분산되어 있기에, 해양수산부 설립에 만족할 것이 아니라 해양수산부가 선진해양국가처럼 해양총괄대부처가 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해양부총리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뜻을 알리는 운동을 지속하고 있다. 인도네시아에서는 해양수산부 장관 위 해양조정부 장관이 부총리를 맡고 있으며, 프랑스에서는 외교부 장관 다음 서열이 해양수산부 장관일 정도다. 해양강국인 한국에서 해양수산부의 위상과 역할이 낮은 것은 미래국가발전을 위해 국가가 풀어가야 할 숙제다.

오늘날 우리나라의 해양가족수는 450만이다. 해외에서 벌어들이는 해운 분야 수익 규모도 막대하다. 그러나 그보다 규모가 작은 산업군과

나는 다음과 같이 국가정책의 대전환을 다시 촉구한다.

- 해양이 국가 미래다.
- 우리나라는 해양해운강국이다.
- 이제 나라의 생각과 지향점이 바뀌어야 한다.
- 대륙 지향적 사고를 해양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
- 해양이 국가 정책의 중심에 서야 한다.
- 그래야 나라가 강해진다.

비교한다면, 해양분야는 결집력이 약해 강한 세력을 형성하지 못하는 것이 아쉽다. 하지만, 해양이 강해야 나라가 강해진다. 20여 개의 관련 협회 등 해양 세력이 뭉칠 수 있도록 신해양경제 ‘블루 이코노미(blue economy)²⁾’를 제창하며 ‘해양경제국력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곧 전국 해양경제연합(해경련) 설립이다. 해경련은 해양, 항만, 해운, 수산, 조선, 국제물류를 모두 수용한다. 해진공도 많은 역할을 해줄 것으로 생각한다.

1) 해양, 항만, 조선, 수산, 국제물류를 포함 2) 해양 생태계의 건강을 유지하면서 국가경제성장을 위해 그동안 소홀했던 해양자원을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활용하는 해양경제-사회체제

“해양이 국정 중심이 돼야 국가에 미래가 있습니다.
해양이 살아야 우리 국가가 잘 삽니다.”

.....

Q. 30년여간 진행해온 시민운동을 소개한다면

가장 먼저 추진한 것은 부산항만공사 설립 운동이다. 다음이 해양수산부 부활 운동이고 세 번째가 한진해운 파산 반대 운동이었다. 비록 한진해운 파산은 막지 못했으나, 이 운동이 오늘날 한국해양진흥공사 설립의 태동이 되었다.

그동안 강조해온 해양 운동의 연장선으로 2020년 7월 출범한 신해양강국 국민운동은 순수 민간 국민운동이다. 우리나라 경제를 뒷받침하는 중요한 국가 기간산업이자 무한한 잠재력을 가진 해양이, 국정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세계 최초의 해양전문국민운동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나라는 세계적인 해양강국이다. 지정학적 여건과 대외지향적인 경제구조로 인해 수출입화물의 99.7%가 선박을 통해 이루어진다. 그러나 해운산업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아직 미흡하다. 한국에서 해운산업과 해양자원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리기 위해, 수출입 물동량 99.7%를 탄 '997배지 달기 운동'을 진행했다. 신해양강국 국민운동 중에서도 가장 뜻깊게 생각하는 운동이다. 향후에도 배지 100만 개 이상이 배포되며, 운동이 확산되기를 희망한다.

Q. 부산항만의 매력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첫째로 부산항은 신항과 북항이라는 트윈 포트(twin port) 형태다. 대규모 물동량을 소화할 수 있어 중국내륙 화물을 제외하면 실제로 상해, 싱가포르를 이어 부산이 세계 3위 컨테이너항만이다. 99.7%라는 물동량을 견인하는 것도 부산항이 트윈 포트라는 물류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기에 가능하다. 두 번째로 부산항은 도심 항만이다. 도심과 가까워 선사와 수요자가 입항, 하역, 운동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마지막은 부산항이 해양관련 학계, 연구기관과 공공기관, 업계가 밀집된 해양 기능 집적 항만도시라는 점이다. 세계에서 부산항만큼 해양 기능이 집적된 항만은 없다. 부산에는 한국해양진흥공사를 포함해 해양 관련 공공기관, 학계, 연구소, 업계가 고루 다 있다. 이 세 가지가 부산항의 큰 장점이자 매력이라고 할 수 있다.

Q. 우리나라 해양 정책에 바라는 점이 있다면

‘우리나라 국정의 중심에 해양이 있어야 한다’라는 게 나의 소신이다. 해양 관련 입법도 더 활성화되고, 더 많은 해양수산전문가가 국회에 진출하기를 바란다. 해수부와 타 부처 간 협력시스템도 더욱 고도화되어 다양한 해양관련사업이 연계되어야 한다. 해양을 중심으로 하는 국가정책과 지역정책의 시너지 효과가 더 많이 일어나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기 위해서 ‘대통령 직속 국가해양위원회’ 설치를 강조하고 싶다. 해양산업을 통한 경제 발전, 미래 먹거리 발굴 등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해 과소평가 된 해양의 중요성을 더욱 이끌어내야 한다. 이러한 노력이 한데 모여야 대한민국이 더욱 발전하여 세계 해양을 선도할 것이다.

해양에 대한 인식 변화도 필요하다. 보통 ‘바다’만 해양이라고 여겨지는데, 해양이라는 범주 속에 연안 지역(waterfront)과 어촌·도서·해상·해저도시 등도 포함³⁾된다. 또 하나의 광대하고 귀중한 영토다. 따라서 해양자원 활용 및 보존을 위한 기술 개발에 적극 투자할 필요가 있다. 해양산업의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고 해양 바이오 IT 기술을 활용하며, 유능한 신해양 인력을 양성해야 한다. 기후변화 및 IMO 등 환경규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세계적인 신해양경쟁력을 확보하는 일도 중요하게 다룰 문제다. 결국 해양에 우리나라의 미래가 달려있다.



“해양 국민운동은 나로서 끝날 것이 아니라,
계속돼야 합니다.”

.....

Q. 마지막으로, 해진공을 위한 조언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한국해양진흥공사는 부산시민들이 힘을 모아 성공적으로 탄생한 기관이다. 공사 설립 배경에 부산시민이 있었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된다. 과거는 흘러가는 게 아니라 흘러오는 것이다. 우리는 늘 미래만 생각하며 청사진, 비전만 생각한다. 그러나 과거 없는 현재, 과거 없는 미래는 없다. 해진공의 발전을 위해서는 굳건한 지역사회를 지지 기반으로 뒤야 한다. 부산시민의 힘이 곧 해진공의 힘이다. 따라서 부산시민에게 돌려줄 시민 환원 프로그램도 필요하다. 공사 내에 해운, 해양 관련 자료실을 만들어 대학생과 전문가에게 개방하여 전문성을 높이고, 일반 시민들이 해양을 친숙하게 여길 수 있도록 다양한 시각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

한국해양진흥공사는 좋은 조건들을 두루 갖추고 있다. 그중에서 인재는 가장 중요한 자원이다. 따라서 다양화된 인재 발굴과 활용이 필요하다. 영역을 넓히기 위해서는 해진공이라는 조직이 세계화되어야 한다. 다양한 국가에서 온 글로벌 인재들이 해진공에서 함께 일하는 미래를 기대해본다. 해양 업계를 견인하는 해진공의 역할이 크다. 이제 해양금융을 넘어서서 항만, 물류, 해양기자재, 첨단조선, 해양과학, 기후, 탄소, 수산 분야까지 아우르기를 바란다.

끝으로 저는 우리의 역사를 늘 아쉬워했다. 우리가 진작 북쪽 중국대륙만 보지 말고 드넓은 해양에 진출했다면 지금쯤은 세계적 해양선진국이 되었을 것이다.

저는 장보고 대사를 존경한다. 8세기 해적만이 넘친 세계해양에서 최초로 한·중·일을 잇는 해양무역루트를 개척한 역사는 오늘날 우리나라가 세계적 해운선진국이 될 수 있는 밑거름이 되었을 것이다.

그동안 저의 시민운동에 도움을 준,
3가지 명언을 소개해본다.

.....

“바다에서의 승리가 곧 모든 것의 승리였다.”
“역사는 결정적인 순간마다 핵심은 늘 해양이었다.”
“인간의 절망도, 인간의 희망도 해양에서 시작된다.”



신해양강국국민운동 3년 결산(13편) '신해양강국국민운동 전부를 알리다'

-박인호·이동현·김인현·한종길·김성준 : 공동편저 -

1편	신해양강국국민운동의 방향과 내용	7편	차기정부에게 바란다 꼭 실천해야 할 해양관련정책 과제
2편	신해양강국국민운동의 시작	8편	해운관련업계 해운정책제안
3편	해양에 무엇이 문제인가	9편	「해양수산 관련 지식인 1,000인모임」 소개
4편	해운 997 배지부착국민운동	10편	세계 3대 해양강국 실현을 위한 과제
5편	해양플라스틱 ZERO 캠페인	11편	윤석열 대선후보 당시 정책공약 약속
6편	450만 해양인, 그리고 국회, 정부에게 드리는 글	12편	신해양강국국민운동을 뒷받침하는 글
		13편	해양 관련 법률 발의안

국배판 520p

3) 해양 영역 분야: 해양, 항만, 수산, 해운, 조선, 물류, 기후, 영토, 도서(유인도, 무인도), 해양플랜트, 연안역 및 수변(Waterfront), 어촌, 수산식품, 해양레저관광, 해양환경, 해양안전, 해양재난, 해양생태, 해양과학기술, 해양문화, 해양외교, 해양법, 해사법원, 해양자원, 해양IT, 바이오, 해양R&D, 인공섬 및 해상·해저도시 등

심신을 다독이는 바다, 해양치유

그동안 바다는 해운과 항만, 수산 등의 분야에서 산업적 가치를 인정받아왔다. 해양의 무궁무진한 가능성이 이제 웰니스 분야에 활용되기 시작했다. 바로 해양자원을 통해 질병의 예방과 치료는 물론 웰빙과 힐링, 레저를 동시에 만족시키는 '해양치유'산업이다.



바다의 미래 먹거리, 해양치유산업

고령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를 차지하는 초고령사회를 앞두고 사회적 으로 건강과 요양, 만성질환의 일상적 치유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더 불어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건강 관리와 질환 예방에 대한 대중의 관심은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지금 전 세계가 주목하는 키워드는 바로 '휴식'과 '치유'다. 여기에 해양을 접목한 산업이 바로 해양치유산업이다.

'해양치유'란 연안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연안' 또는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해양'에서 이루어지는 체질 개선, 항노화, 면역력 향상 등 국민의 건강을 증진하기 위한 행위를 지칭한다. 정부는 해양치유산업 활성화를 위한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2020)', 이른바 해양치유법을 제정하고, 해양수산부는 해양치유산업 발전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세부 사업을 실행하고 있다.

비교적 익숙한 개념인 산림치유¹⁾와 비교해보면, 해양치유에서 활용되는 자원의 종류는 훨씬 다양하며 복합적이다. 대표적인 해양치유자원은 일반 바닷물과 청정해수, 해양심층수 등으로 여기서 파생되는 바다소금, 모래, 머드, 바위, 자갈도 모두 포함한다. 또한, 해풍과 태양광, 해양 공기 등의 해양기후부터 해조류, 해초, 기타 해양동물 등을 아우르는 해양생물자원도 빠질 수 없다. 그 외에도 바다와 맞닿아 있는 해변과 산림, 섬 등 배후공간 역시 주요한 해양치유자원이다. 여러 해양자원을 통해 질병 예방과 건강 증진 및 재활 치료에 보조적 도움을 주는 것이 해양치유의 목적이다.

해양치유의 역사와 세계 동향

기록에 의하면 최초의 해양치유는 기원전 고대 그리스에서부터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 고대 의학자 히포크라테스는 피부병 치료에 따뜻한 해수 목욕을 권한 바 있다. 유럽에서는 주로 '탈라소테라피 (Thalassotherapy)'라고 불리는데, 그리스어로 바다를 뜻하는 '탈라사 (θάλασσα, Talassa)'와 '테라피(Therapy)'의 합성어다. 해양치유산업이 발달한 대표 국가인 독일과 프랑스는 해양치유에 건강보험급여를 적용하여, 국민들이 보다 부담 없이 치유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에서 공공성을 갖춘 시스템을 구축했다.

18세기 말부터 해양치유산업을 시작한 독일은 일종의 해양치유단지인 쿠오르트(Kurort)를 약 360군데 보유하고 있으며, 그중 바데하우스 (Badehaus Nordemey) 내 다양한 시설들은 독일 내 가장 오래된 해양치유시설인 만큼 다수의 국제수상경력을 자랑한다. 수질 모니터링, 전문 의료진과 진료실 구비, 해변 산책로 및 스포츠시설 등 각종 기준을 정부에서 엄격하게 관리하며, 인증을 받은 쿠오르트 시설에서는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다.

해양치유 역사가 100년이 넘는 프랑스는 세계에서 해양치유를 최초로

도입하고 산업화시켰다. 1899년 '탈라소테라피센터'를 시작으로 현재 프랑스 해양치유시설은 약 83여 개소에 달하며, 매년 90만 명이 방문한다. 그중에서 37개소는 철저한 위생과 보안, 천연해수 사용, 우수한 경관, 의학적 치료 등 공공전문기관의 까다로운 인증을 받아 운영 중이다.

아시아권에서 해양치유산업이 크게 발전한 나라는 일본이다. 많은 섬으로 이루어진 오키나와현을 중심으로 1990년대부터 해양치유가 도입되었다. 온천과 목욕문화가 발달한 나라답게 해양심층수 활용 요법을 중심으로 프랑스의 해양치유모델을 참고해 약 30여 개의 일본식 테라피 센터를 조성해 운영하고 있다. 일본의 해양치유산업은 정부 지원 아래 지역대학, 연구기관, 민간기업이 연계하여 활성화 방안 등을 연구하는 것이 특징이다.

우리나라 해양치유의 현주소

인구소멸 예상지역 상위권에 거론되던 전라남도 완도군은 2016년부터 일찍이 '해양치유 전담팀'을 설치했다. 그리고 전국에서 가장 먼저 해양치유 사업화 계획을 세웠으며, 그에 따라 2017년부터 2030년까지 총 1조원 규모로 국내 최대 해양치유산업단지를 조성할 예정이다. 현재 해양기후치유센터, 해양문화치유센터, 청산해양치유공원 등 관련 시설이 완공되었으며, 노르딕워킹, 해양 필라테스, 해변 명상 등 완도의 자연을 활용한 다양한 해양치유 프로그램을 선보이고 있다.

최근 슬로시티²⁾ 재인증에 성공한 충청남도 태안은 서해안의 특산물인 머드, 소금, 염지하수 등의 자원을 활용한 특색 있는 치유 프로그램을 구성 중이다. 실제 에어로졸, 피부케어, 탈라소풀과 소금치유, 해수치료 등 주로 단기간에 효과를 보이는 프로그램을 위주로 한다. 2024년 완공을 앞둔 태안 해양치유센터는 서해안 해양치유산업의 구심점이 될 예정이다. 최근 태안군은 단국대 평생교육원과 '2023년 해양치유 전문인력 양성과정 교육'을 운영하며, 산업 활성화를 위한 인재양성에도 힘을 모으고 있다.

경상북도 울진군에서는 중장기 체류형의 해양치유모델, 특히 온천과 산림자원을 연계하여 해수욕, 온천욕, 산림욕을 모두 즐길 수 있는 융복합 치유공간 조성을 목표로 한다. 경상남도 고성군은 인근 대규모 산업단지 근로자를 대상으로 기업연계형 해양치유공간을 조성할 계획이다. 2018년부터 해양치유 아카데미를 유치하여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교육 거점으로 도시를 포지셔닝하며, 해양치유센터와 해양치유숲길 조성을 앞두고 있다.

우리나라의 뛰어난 해양자원들을 활용한 해양치유산업이 점차 가시화되고 있다. 동해, 서해, 남해 등 각 해양의 특색이 다른 만큼 지역 고유의 강점과 차별성을 해양치유에 담아내어 지역 경쟁력 제고와 더불어 국민 건강과 복지 실현에 한 걸음 다가서기를 기대해본다.

1) 향기, 경관 등 자연의 다양한 요소를 활용하여 인체의 면역력을 높이고 건강을 증진시키는 활동(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2) 현대사회의 양적 성장 및 속도 전쟁에서 벗어나 살기좋은 도시, 지속 가능한 도시를 추구하는 '국제 도시 브랜드'로 지역의 정체성을 드러낼 수 있는 유무형의 자산 (자연 생태, 전통산업, 문화, 음식)이 있어야 지정 받을 수 있으며, 국내 슬로시티로는 전남 신안, 완도, 경남 하동, 전북 전주, 경북 상주 등이 있다.

든든한 한 해 마무리, 식도락 길을 걷다

전포 골목들, 수안동 꿈리단길, 서동미로시장 등

찬바람 불기 시작하고 또 한 해가 저물어간다. 아쉬움도 잠시, 부산 골목골목 스며든 맛있는 음식과 함께라면 더욱 즐거운 연말이 될 것이다. 따뜻한 커피와 달콤한 디저트부터, 매콤한 공장어, 추억을 소환할 분식까지! 헛헛한 연말을 든든하게 채워줄 식도락 골목으로 안내한다.

이미지 출처: 부산광역시, 부산관광공사



부산진구 지금, 여기의 지역문화 속으로

전포커피거리&전포사잇길

예전에는 그저 서면 주변이라고 인식되었던 전포가 달라진 지 오래다. 전포의 많은 골목이 자기만의 맛과 멋을 내세우며 스스로 존재감을 뽐내고 있다. 가장 유명한 골목은 역시 '전포커피거리'다. 2017년 뉴욕타임즈 선정 '올해의 세계여행지 52곳'에 선정되어 해외에까지 그 이름을 알렸다. 이후 많은 관광객이 이곳을 찾으며, 이제는 당당히 부산을 대표하는 관광지로 자리를 잡았다.

전포커피거리를 지나 전포역을 건너면 서면 4번가가 나온다. 여기서부터 '전포사잇길'이 시작된다. 음식점과 술집, 카페 등 크고 작은 가게들이 빽빽하게 들어서 있다. 하지만 그 분위기는 서면 롯데백화점 부근의 1번가나 주디스타화 신관이 있는 2번가와와는 사뭇 다르다. 개성 강한 가게와 비교적 조용한 거리, 전포사잇길은 특유의 오묘한 매력으로 사람들을 끌어당기고 있다.



함께 가면 좋을 곳 | 부산커피박물관

2018년 6월 개관한 부산커피박물관은 개인이 세운 사설박물관으로 규모가 크고 전시내용도 알차다. 500여 점 이상의 커피 관련 유물을 보유 중이며, 관람객을 위한 40분 남짓 도슨트의 설명도 들을 수 있다.

입장료 무료
주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동천로70, 2층 207호
운영시간 평일, 10:00~17:00(주말 및 공휴일 휴관)

전포공구길(전리단길)

서면 중심부에서 부전역 쪽을 향해 큰길을 건너면, 전포초등학교 부근에 '전리단길'이라고도 불리는 전포공구길이 나온다. 공구와 철물 등 산업용품을 판매하는 공구상가가 모여있던 곳으로, 관련 산업이 쇠퇴하며 사라진 공구상가의 빈자리에 새로운 가게들이 하나둘 자리를 채우며 이전과는 다른 색깔의 골목이 조성되기 시작했다.

여전히 자리를 지키는 공구상가와 자기 개성을 한껏 뽐내는 새로운 가게들이 한데 어우러져 전포공구길에 다채로운 인상을 빚어낸다. 카페와 디저트 가게, 식당과 술집, 편집숍 등 먹고 마시고 볼거리가 다양하다. 레트로 감성과 '합'한 분위기가 물씬 풍기는 인테리어부터 입은 물론 눈까지 즐거운 플레이팅까지, 어디를 가든 실재없이 셔터를 누르게 될 것이다.

함께 가면 좋을 곳 | 전리단갤러리

2020년 문화체육관광부 공공미술 프로젝트에 선정되어 조성된 전시관으로 지역 예술가에게는 창작활동의 기회를, 지역민들에게는 다양한 전시와 체험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다. 부산진문화재단의 '전리단갤러리 가상 전시공간'에서 다양한 작가들의 작품을 온라인으로도 만나볼 수 있다.

입장료 무료
주소 부산진구 서전로 37번길 20 2층
문의 070-8832-4578



동래구 '곰장어' 먹고 고즈넉한 동헌 산책

수안동 곰리단길

표준어로는 곰장어 또는 먹장어로 불리지만, 우리의 침샘을 자극하는 건 아무래도 '곰장어'라는 사투리 명칭이다. 이른바 '곰장어 골목'이라고 불리는 곳은 자갈치 부근과 부전역 인근 등 여러 군데가 있지만, 빼놓을 수 없는 곳이 바로 동래 수안동의 곰장어길, '곰리단길'이다.

수안역 7번출구에서 나와 조금만 걸으면 곰리단길에 닿는다. 골목 초입부터 연탄에 구워낸 곰장어 냄새가 피어오른다. 곰장어집뿐만 아니라 횡집, 생선구이 등 다양한 맛집이 웅기증기 모여있으니 발길 닿는 대로, 끌리는 대로 들어가면 된다. 곰장어 특유의 풍미를 오롯이 맛볼 수 있는 소금구이부터 매콤한 맛이 중독적인 양념구이까지 취향껏 선택하고, 여기에 한입 가득 씹은 물론 볶음밥으로 식사를 마무리하면 한 상 든든한 코스요리 부럽지 않다. 2021년, '수안동 곰리단길'은 특색 있는 부산의 골목 공동체를 선정하여 환경을 개선하고 공동 마케팅을 진행해 상권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사업인 '우리동네 골목상권 활력증진사업'에 선정되었다.



동래부동헌

수안동 곰리단길에서 한 블록만 넘어가면, 도심 속에 불쑥 자리 잡은 조선시대 동래부동헌을 만날 수 있다. 예로부터 동래는 한반도 제일의 전략요충지로 기능하여 일찍이 읍성과 관아가 설치된 지역이다. 동헌은 조선시대 수령(지방 관리)의 집무 공간으로, 외국 사신이나 벼슬아치를 대접하던 숙소인 객사 다음으로 가장 중요한 공간으로 여겨진다. 동래부동헌 일곽은 조선시대 동래의 행정, 국방, 외교 업무를 도맡은 부산역사의 주요한 장소다.

동헌의 중심이 되는 충신당과 좌우의 연심당과 독경당, 망미루와 외대문 등 많은 관아 건물들이 넓은 부지로 부속되어 있었지만, 일제강점기에 건물 대부분이 철거되었다. 2014년 독경당과 찬주헌을 시작으로, 2015년 고마청, 2023년에는 약사청과 행랑채를 복원하였다. 온천동 금강공원으로 옮겼던 망미루와 외대문은 현재의 위치로 이전되었다. 전통의상체험, 전통놀이체험 등 전통체험이 가능하며, 신청 시 동래구 문화관광해설사의 해설도 들을 수 있다.

입장료 무료
 개방시간 하절기(4~9월) 09:00~18:00
 동절기(10~3월) 09:00~17:00
 미개방 매주 월요일(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 신정, 설날 및 추석 연휴
 해설안내
 해설시간 10:00~16:00(화~일)
 해설신청 동래부 동헌 충신당



금정구 맛과 문화가 가득한 미로 탐험



서동미로시장

서동미로시장은 서동시장, 서동향토시장, 서동전통골목시장의 3개 시장을 통합한 시장으로 입구가 9개, 총 길이가 1.5km로 오밀조밀한 길이 마치 미로(迷路)를 닮았다 하여 그 이름이 붙여졌다. 2014년 전통시장 육성사업에 선정되었으며, 사람과 길이 이어진 아름다운 길(美路)이라는 의미를 더해 문화와 예술을 더불어 경험할 수 있는 문화관광형시장으로 거듭났다. 전통시장과 더불어 서동예술창작공간, 섯골문화예술촌 등 다양한 문화시설이 함께하고 있어 전통과 문화의 융합을 통해 전통시장에 생기를 불어넣었다.

서동미로시장의 대표 음식인 계란만두는 불린 당면에 계란 반죽을 올려 기름에 부쳐낸 간식이다. 서동미로시장의 명물인 40년 전통의 계란만두집은 BTS 멤버인 지민이 어렸을 적 자주 들렀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전국 팬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서동예술창작공간&섯골문화예술촌

서동미로시장은 예술촌과 도서관, 창작공간이 어우러진 문화융합형 시장을 지향한다. 2012년 6월 개관한 서동예술창작공간은 지상 2층, 지하 1층의 규모로 갤러리, 북카페, 작은도서관 등 상시적으로 즐길 수 있는 문화공간과 다목적실, 강의실, 야외무대 등 다양한 기획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공간을 갖추고 있다. 또한 5월부터 11월 까지, 매달 문화가 있는 날을 기념해 지역 주민들을 위한 다양한 기획 행사를 진행해오고 있다.

2015년 설립된 섯골문화예술촌은 2층 단독 주택을 개조한 아늑한 예술공간으로 개방형 작업실과 개인 작업실로 이루어져 있다. 창작 레지던시 공간이자 시장 상인 및 지역 주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문화 사랑방 역할을 한다. '어린이자율공방'부터 가족공예, 한지공예를 비롯한 '섯골 우리동네공예방'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무료로 운영하고 있다.

함께 가면 좋은 곳 | 책마을보드랑 작은도서관

2020년 개관한 책마을보드랑 작은도서관에는 45종의 보드게임과 일반 아동도서 3,300여 권이 비치되어 있다. 아기자기한 인테리어에 다양한 보드게임이 구비되어 있어 책을 싫어하는 어린이도 자연스럽게 도서관을 찾게 한다. 책은 물론 보드게임도 대출할 수 있다.

입장료 무료
 주소 부산광역시 금정구 서동로 115-1
 운영시간 화~토 10:00~19:00
 (일요일, 월요일, 공휴일 휴관)



눈이 가득, 설경이 아름다운 영화

한겨울의 정경을 가장 잘 드러내는 풍경은 바로 새하얀 눈이 가득한 설경이다. 때 묻지 않은 하얀 눈밭은 과거 사랑했던 연인과의 추억을 불러오기도 하고, 살을 에는 추위는 생존의 극한 상황이자 복수와 증오를 은유하는 흑독한 배경이 되기도 한다.



설국 속 마지막 인류의 계급 투쟁
<설국열차>
2013 | 125분 | 한국



티 없는 마음의 영원한 햇빛
<이터널 선샤인>
2005 | 107분 | 미국



죽음 앞에서 복수를 다짐하다
<레버넌트: 죽음에서 돌아온 자>
2015 | 156분 | 미국



증오에 찬 8인이 펼치는 밀실 서스펜스
<헤이트풀 8>
2016 | 167분 | 미국 | 청소년 관람 불가

영화<기생충>(2019)으로 칸영화제 황금종려상을 수상해 한국영화사를 다시 쓴 봉준호 감독의 첫 영어영화로, 장 마르크 로셰트·자크 로브의 동명의 프랑스 만화를 원작으로 한다. <어벤져스>의 '캡틴아메리카'로 잘 알려진 '크리스 에반스'가 주연이며, 작품마다 새로운 얼굴을 선보여온 배우 '틸다 스윈튼'이 씬스틸러로 활약한다. 이상 기후로 빙하기가 오고 모든 세상이 얼어붙은 가운데, 설경 속에서 기차 한 대가 멈추지 않고 궤도를 달린다. 열차 맨 뒤쪽의 꼬리칸은 차별과 착취가 일어난 빈민굴이고, 앞쪽의 머리카는 호화로운 생활과 삶의 여유가 넘치는 상류층의 공간이다. 이 영화는 기차의 엔진을 장악하고 꼬리칸을 해방시키기 위한 폭동의 이야기다. 꼬리칸에서 머리카로 열차를 한 칸씩 거슬러 올라갈 때마다, 뒷칸과는 다른 새로운 세계가 환상적으로 펼쳐진다.

누군가의 인생 영화로 곧잘 꼽히는 이 영화는 기발한 상상력을 선보이는 미셸 공드리 감독의 작품이다. '조엘'은 연인 '클레멘타인'을 만나러 그녀가 일하는 서점을 찾았지만, 그녀는 조엘을 알아보지 못한다. 알고 보니 조엘에 관한 기억을 모두 지운 것. '라쿠나'사를 찾은 조엘 역시 핏김에 클레멘타인과의 기억을 지우기로 한다. 하지만 기억을 없애기 위해 다시 들춰보는 과거에는 서로를 향한 사랑이 가득하니, 조엘은 이제 클레멘타인이 기억에서 사라지지 않도록 기억 속에서 그녀와 도망치기 시작한다. 아픈 기억을 지운다는 설정에도 불구하고 SF나 판타지 장르와는 결이 다르다. 실제로 감독은 관객들이 이야기와 캐릭터에 온전히 집중하도록 영화 내용상 기술적인 면이 두드러지지 않도록 신경 썼으며, CG가 아닌 원근법 등 영화 초창기 촬영법을 활용하여 다양한 화면을 연출했다.

19세기 초, 미개척 지역을 돌아다니며 아메리카를 약탈하는 서구 열강과 인디언들 사이의 갈등이 최고조에 달할 때. 값비싼 가죽을 채집하기 위해 아메리카 대륙으로 온 한 무리의 미국인들과 미군에 고용된 사냥꾼이자 길잡이 '휴 글래스'는 인디언 혼혈인 아들 '호크'를 데리고 여정에 합류한다. 인디언 아리카라 족의 습격으로 일행의 절반 이상을 잃고 도망치는 중 글래스는 회색곰의 공격을 받아 죽음의 문턱까지 간다. 사랑하는 아들의 죽음을 목격한 휴 글래스는 가까스로 살아남아 복수를 위해 움직인다. 숨소리와 어우러지는 음향이 극한에 치달은 인간의 현실과 환상을 버무려 보여준다. 흑독하고 잔인한 겨울의 추위와 공격 속에서 살아남기 위한 극한의 상황을 실감 나게 담았다. 그만큼 잔인한 장면이 많으니 아이들과는 시청하지 않는 편이 좋겠다.

쏟아지는 눈, 광활한 숲속. 온 세상이 하얗게 물들었다. 교수형 집행인과 그가 이송 중이던 죄수가 탄 마차가 거세지는 눈밭을 가로질러 숲을 달리고 있다. 우연히 현상금 사냥꾼과 보안관을 만나 그들을 태우고 살벌한 눈보라를 피해 산속의 한 집회점으로 들어서는데 그곳에는 이미 남부 연합군 장교, 이방인, 리틀맨, 카우보이가 머물고 있었다. 주인 없는 숲속의 집회점에 모인 여덟 명의 사람들. 서로를 경계하는 긴장감 속에 한 사람이 독살로 죽게 되자 불신은 고조된다. 여기서 거짓말을 하는 사람은 누구일까, 무엇이 사실일까, 그들은 왜 이곳에 모였을까. 총 6장으로 구성된 이 영화는 각 인물의 서사들이 과거와 현재를 오가는 플롯으로 촘촘하게 엮이며, 거짓과 진실이 하나둘 밝혀지는 구조로 전개된다. 긴 상영 시간에도 지루하지 않은 서스펜스와 유머가 어우러진다.

알찬 연말 마무리를 위한 도움말

어느새 2024년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이대로 보내기 아쉬운 2023년, 연말을 알차게 마무리하는 방법에는 무엇이 있을까. <비타민SEA> 독자들이 보내온 송년 꿀팁을 공유한다.



2위

한 해를 돌아보고 내년을 내다보는 혼자만의 시간

올해 년 뭐 했니? 스스로 물어봅니다. 그리고 올해 목표 중 성공한 것을 생각해봅니다. 올해 목표가 없었다면 내년 목표를 세우면 돼요! 그리고 칭찬해주세요! 올해도 수고했어, 나 자신! <염세주의자 님>

좋은 연말을 보내야 좋은 연초가 찾아와요. 사람들을 만나는 모임도 좋지만 혼자서 올해 성과를 정리하고 내년에는 어떻게 더욱 발전할 수 있을까 성찰하는 시간이 필요해요. <장은 님>

저는 1년을 되돌아보며 잘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꼭 점검해보요. 그 시간이 있어야 다음 해도 연속성 있게 잘 시작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에요! <치킨마니아 님>

올해 계획을 얼마나 달성했는지 돌아보는 것도 의미 있더라고요.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 것 같아 자책하다가도, 생각보다 열심히 살았네 하고 스스로가 자랑스러워집니다. 저는 9개의 목표 중 7개를 이뤘답니다! <유재 님>



올해 계획을 모두 잘 이루었는지 혼자 되돌아봅니다. 이루지 못한 것들, 뜻밖에 이루어진 것들을 살펴보고 내년 계획도 세워봐요. 그럼 연말의 아쉬움보다 뿌듯함이 남아요. <김모란 님>



연말이 되면 서쪽 하늘의 노을을 바라보며 지난 한 해를 정리해봅니다. 더 나은 내일을 위해 힘차게 달려온 자신을 위로하고 격려하며 다가오는 새해의 다짐과 계획을 세워봅니다. <전오욱 님>

3위

나를 위한, 너를 위한 선물로 따뜻한 연말



'마니또'를 추천합니다. 선물을 준비하는 동안 설레고 뜯으면서 재밌고! 서프라이즈 선물까지 받으니 송년 마무리로는 마니또가 딱입니다!!! <잔망루피 님>



매달 있는 책 모임에서 연말 때 서로에게 책 선물을 했습니다. 선물 받은 책을 보면 그해의 마지막이 생각나요. 알차고 뿌듯한 한 해 마무리로 책 선물을 추천합니다. <인간비타민 님>



저는 작고 귀여운 것들을 좋아해서 취미로 모으는데, 일이 많고 지칠 때 바라보면 자연스럽게 힐링이 되더라고요! 올 연말, 열심히 일한 나를 위한 선물로 귀여운 거 하나쯤은 괜찮잖아? <냥만쟁구 님>



1위

연말의 꽃 '송년회' 소중한 사람들과 파티 열기

알찬 연말, 기억에 남는 연말을 위해 좋아하는 지인들과 함께 크리스마스 파티를 즐기는 건 어떨까요? 올 한 해 좋았던 일, 슬펐던 일을 공유하며 시간 보내기 추천합니다! <박오빈 님>

오랜 친구들과 '해냈다 파티'를 열어요. 한 명씩 올해 해낸 일 3가지, 내년 목표 3가지를 번갈아 말하고 '해냈다송' 부르며 서로 축하해줍니다. 맛있는 것도 먹고요! 보람차게 올해를 마무리하면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내년을 맞이할 용기가 나요. <완두콩 님>

분비는 식당보다는 조용한 집에서 음식을 직접 차려 먹으며 올해 근황을 나눠요. 친한 사람들과 맛있는 음식과 술을 마시며 보내는 연말이 제일 즐겁지 않나요? <보쌈복분자 님>

한 해 동안 일하느라 자주 보지 못했던 소중한 인연들을 만나 쌓아둔 이야기를 나누면서 스트레스를 날려버립니다. 다가오는 새해를 맞이하는 즐거운 송년회에서 한 잔...! <만두 님>



12월 연말만큼 시간을 내어 타지에 있는 친구들과 중간지점에서 만나는데요, 올해는 3시간을 달려 전주에서 만났답니다. 한옥마을에서 다도체험을 하며 따뜻한 겨울을 보냈어요. 연말엔 좋은 사람들과 좋은 시간을 보내길 추천합니다! <따뜻한 겨울이 님>



가족들과 2023년 한 해를 잘 마무리하는 시간을 보냅니다. 백화점 가서 아이쇼핑 하면서 맛있는 케익을 사와 가족과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냅니다. <오렌지 님>



이불 밖은 위험해! 아빠는 와인, 엄마는 바비큐와 라자냐, 아들은 크림스파게티, 딸은 시판 아이스크림. 식구들 각자 음식을 만들어서 근사한 연말 홈파티를 즐겨요. <러브레터 님>

3위

행사&공연으로 즐기는 풍성한 연말



연말엔 크리스마스가 가장 기대돼요~ 저는 크리스마스 행사를 찾아다니며 은근히 추위를 즐긴답니다. 그리고 집에 트리 장식까지 하면 외롭지 않은 포근한 연말이 될 거예요! <예꿈 님>



저는 연말이면 어김없이 가족들과 함께 스키장에 갑니다. 스키를 못 타더라도, 부산에선 보기 힘든 설산을 보며 12월 마지막 밤의 불꽃축제를 보는 재미를 즐길 수 있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스키장에서 즐기지만 따뜻한 연말을 보내보세요! <엘흐스 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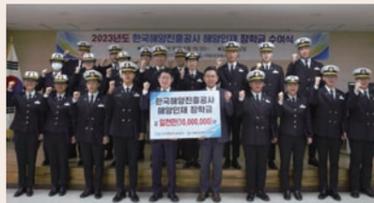
연말 콘서트나 공연 관람 어떠신가요? 사랑하는 사람과 가족과 친구와 함께, 연말 콘서트를 즐기면서 한 해를 따뜻하게 마무리해보세요. <서리태콩 님>

이모저모 해진공



『한국해양진흥공사법』 개정안 본회의 의결

10월 6일(금) 국내·외 항만개발사업, 해외항만물류사업 및 선박연료공급업 등의 항만운송관련 사업에 대한 투자, 채무보증 관련 금융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마련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한국해양진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이 법률안은 국무회의 및 대통령 재가 등의 절차를 거쳐 최종 공포될 예정입니다. 그간 해운기업들의 안정적인 선박 도입, 유동성 확보 지원 등 해운금융에 중점을 두었으나, 앞으로 해운기업과 수출입 화주 기업의 물류비 절감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항만물류금융도 적극 확대하여 글로벌 선사와의 경쟁에서 국내기업의 원가운영 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해나갈 것입니다.



인천해사고등학교에 '해양인재 장학금' 전달

10월 6일(금) 인천광역시 중구 인천해사고등학교 강당에서 '한국해양진흥공사, 해양인재 장학금 전달식'을 개최하여, 김양수 공사 사장과 양희복 인천해사고등학교 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학교를 통해 공정하게 선정된 20명의 장학생에게 총 1천만 원의 장학금(1인당 50만 원)을 전달하였습니다. 공사는 해양산업 인력 양성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고 유관 산업 일자리 창출을 위해 올해부터 한국해양수산연수원 오션폴리텍과 부산해사고, 인천해사고 예비 해기사를 대상으로 '해양인재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공사는 대한민국 해운산업 미래를 책임질 해양산업 인재육성을 위해 적극적으로 다방면의 지원을 펼쳐나갈 것입니다.



한국해양진흥공사-기술보증기금. 청년이사회 간 첫 교류행사 실시

공사는 '공공기관 업무혁신 및 소통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 활동의 일환으로, 10월 27일(금) 부산시 남구 기보 본점에서 청년이사회 교류행사(혁신사례 네트워크 데이)를 개최했습니다. 참석자들은 주니어 직급의 시각에서 제안했던 올해 혁신과제들을 소개하고 개별 혁신과제 수행 중 발생한 문제점과 극복 경험 등을 공유하였으며, 공공기관의 경영공시, 혁신관리, 예산집행 등의 업무수행 중 내부 프로세스 개선 경험과 업무 방식을 공유하며 상호 발전의 기회를 가졌습니다. 공사는 청년이사회 교류 활동이 기관의 실질적인 조직역량 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이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2023 KOBC 마리티타임 컨퍼런스 성료

11월 1일(수), 해운금융·항만물류·해운시황 관련 국내 최대행사 'KOBC 마리티타임 컨퍼런스'가 부산 파라다이스 호텔에서 국내외 관계자 4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막을 내렸습니다. 이번 컨퍼런스에서 금융세션은 Mr. Abhishek Pandey(스탠다드차타드 뱅크)와 김덕원 대표이사(한국초저온)가 발표를 맡았으며, 각 선종별 시황세션에서는 유조선 Mr. Oliver Ge(McQuillim), 컨테이너선 Mr. Jan Tiedemann(Alphaliner), 선박매매 시장 Mr. TomEvans(VesselsValue)가 초청되어 각 시장의 현황과 전망을 발표하였습니다. 공사는 참가자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해운산업에 대한 다양한 지원방안을 모색할 예정입니다.



미디어아트 '시대를 향해하다' 전시관 개관

공사는 11월 6일(월) 국립해양박물관 대강당에서 미디어아트 '시대를 향해하다' 전시관 개관식을 갖고, 7일(화)부터 해당 전시를 지역 아동, 청소년을 비롯한 일반 시민들이 자유롭게 관람할 수 있는 상시 전시로 무료 공개하고 있습니다. 이번 미디어아트 전시 콘텐츠 기부는, 공사가 진행하는 사회공헌사업의 일환으로 미디어아트를 통해 해운항만 산업의 중요성과 바다의 보편적 가치를 알리고 미래세대의 해양문화예술 체험 기회제공을 위해 마련하였습니다. 지난 7월 말부터 전시 일부를 시범 전시로 공개했으며, 해양산업을 예술적인 경험을 통해 효과적으로 해운항만을 소개한다는 점에서 대중들에게 큰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제23회 대한민국디지털경영혁신대상 '특별상' 수상

11월 15일(수)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최한 '제23회 대한민국 디지털경영혁신대상'에서 특별상을 수상했습니다. '대한민국 디지털경영혁신대상'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기업경영과 업무 프로세스 혁신을 도모해 국가 경쟁력 향상에 힘쓴 기업과 기관을 대상으로 매년 시상해오고 있습니다. 공사는 이번 대회에 국내 최초, 자체 해양금융 디지털 플랫폼인 '차세대 업무시스템, 아라온(Araon)'을 출품하여 심사위원과 국민평가단으로부터 경영 투명성 향상 및 기업 경쟁력 제고, 디지털 기반 해양금융 업무처리 표준화, 디지털 기술 적용, 해양금융 신속 지원을 통한 대국민 서비스 품질 향상을 높이 인정받았습니다.



임직원 경영혁신 및 조직화합 워크숍 성료

11월 21일(화) 아르피나 그랜드볼룸에서 '2023 경영혁신 및 조직화합 워크숍'을 개최하였습니다. '경영혁신 및 조직화합'이라는 주제로, 임직원 1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혁신 조직 추구, 업무 프로세스 혁신, 규제혁신, 적극 행정 등 혁신 성과 발표를 통해 공사의 혁신 방향 및 실적을 공유하였습니다. 중앙대학교의 우수한 교수를 초빙하여 타 공공기관 우수 혁신사례를 수강하고 이어 혁신 본업토의를 통해 혁신과제를 도출하고 세부 이행 계획을 논의하는 등 조직 업무 강화 및 화합을 위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공사는 임직원의 소통과 화합, 적극적 전사 혁신을 통해 기업 지원을 강화하고 해양금융 활성화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부산 해양단체들, 플로깅 캠페인 열어

12월 1일(금), 한국해기사협회, 한국여성해사인협회, 한국해양대학교 해사대학 등 해기사 관련 기관과 감지해변 일원에서 해양환경살리기 캠페인을 시행했습니다. 플로깅(plogging)은 조깅을 하면서 쓰레기를 줍는 환경보호운동을 지칭하는 합성어로 부산지역 해양단체들이 이번에 실시한 플로깅은 '바다는 우리의 미래', '깨끗한 바다를 후손에게라는 가치를 결코 진행했습니다. 특히 이날 행사에는 미래 해양산업의 주축이 될 한국해양대학교 해사대학 학생들이 대거 참석하여, 바다 사랑을 실천하고 해양환경에 대한 의식을 고취할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공사는 앞으로도 지속가능한 해양환경 조성을 위해 다양한 해양정화활동을 펼쳐나갈 계획입니다.



한국여성해사인협회에 여성해기사 위한 2천만원 상당 승선 생활용품 기부

12월 6일(수) 공사 대회의실에서 '여성해기사 승선지원 키트 전달식'을 갖고 총 2천만원 상당의 승선 생활용품 200세트를 굿네이버스 영남지역본부 통해 사단법인 한국여성해사인협회에 전달하였습니다. 이번 행사는 여성해기사로써 새출발을 앞둔 한국해양대와 목포해양대 졸업예정자와 승선 실습 중인 부산해사고, 인천해사고 여학생을 응원하기 위해 마련하였습니다. 공사는 한국여성해사인협회, 굿네이버스와 함께 사전 조사를 통해 장기 승선생활에 필요한 물품인 샤워기와 필터, 피부보습 제품, 여성 위생용품 등으로 승선지원 키트를 구성하였습니다. 공사는 해운전문가로서 미래를 개척해갈 예비 여성해기사의 앞날을 응원하겠습니다.



'2023년 ESG경영 혁신대상, 기타공공기관 환경(E)부문 최우수상' 수상

12월 15일(금) 서울시 중구 한국경제신문 다산홀에서 열린 '2023년 ESG경영 혁신대상' 시상식에서 "기타공공기관 환경(E)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하였으며, 해양수산부 산하기관 중 유일하게 수상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공사의 ESG 각 부문 우수사례 중 환경부문(E)은 해양산업을 위한 녹색금융으로 국제해운선사의 금융활로를 열어주고 국제 환경규제 강화에 대한 지원책을 적극 수행한 점, 사회부문(S)은 우수선화주기업 인증제도로 시장 내 불공정거래 관행을 근절하고자 노력한 점, 지배구조부문(G)은 해양금융 전문기관으로서 투명성 확대 노력을 통해 해양수산부 자체 감사기구 우수사례로 선정된 점 등이 높이 평가받았으며, 특히 G부문은 100% 득점률을 기록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해양산업 전반에 ESG경영이 확산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욱 청렴한 해진공을 만들기 위해 애쓰는 사우들을 위한 코너!
공사의 청렴·윤리 활동 소식과 헛갈리는 청탁금지법, 그리고 청렴의 중요성을 다룬 영화까지 만나보세요.

KOBC 청렴 윤리 활동 소식

CLEAN
KOBC.1



해양수산부 산하 공공기관 종합 청렴도 '3위' 기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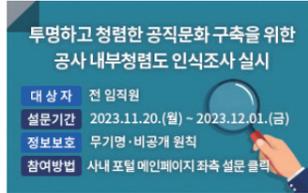
해양수산부에서는 내부직원 및 외부 고객을 대상으로 실시한 자체청렴도 조사에서 공사는 종합청렴도 평가점수 96.64점으로 해양수산부 산하 12개 공공기관 중 3위를 기록하였습니다. 특히 외부청렴도 부분에서는 12개 기관 중 1위를 기록하여 임직원의 청렴을 향한 노력의 결실을 볼 수 있었습니다.



청렴·윤리의식 자가진단 설문조사

지난 10월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청렴·윤리의식 자가진단을 실시하였습니다. 15개 설문항목에

대한 답변 결과를 통해 본인의 청렴 수준을 점검하였습니다. 임직원 스스로 자신의 부패위험도를 자가진단함으로써 부패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개선해나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공사 내부청렴도 인식조사 설문 실시

'23년 해양수산부 산하 공공기관 자체청렴도 측정 결과 내부청렴도 취약 분야에 대한 직원들의 인식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공사 임직원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내부청렴도 취약분야 각 항목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별 유형을 파악하여 환류를 통한 개선 활동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전 직원 대상 대면 청렴교육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반부패·청렴 대면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국민권익위 인증 청렴 전문강사를 초청하여 반부패·청렴 주요 법령인 청탁금지법 및 이해충돌방지법의 주요 사항과 임직원 행동강령에 대한 특강을 진행하였습니다. 사례 중심의 강의를 통해 간과하기 쉬운 반부패 법령을 익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긴가민가 청탁금지법(사적이해관계자 신고 및 회피 기피 신청)

CLEAN
KOBC.2



Q1. 공사 직원 A가 채용 면접 평가위원으로 선정되어 심사를 하는 중, 지원자로 배우자의 동생이 참여하였다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어떠한 조치를 해야 할까요?

직원 A와 그의 배우자 동생이 이해충돌방지법 제2조에 따라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해 '사적이해관계자'에 해당하여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및 회피·기피 신청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생계를 같이 하지 않는 경우라면, '사적이해관계자'에 해당하지 않아 그 사실에 대해 회피 및 기피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Q2. 공사 직원 A는 계약 체결 및 용역비 지급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계약을 체결한 용역업체에 동생 B가 용역 산출 및 지급 요청 업무를 담당하는 경우 직원 A는 이해충돌방지법 신고 대상의무가 발생하나요?

직원 A의 업무는 이해충돌방지법 제5조제1항제7호 공사·용역 또는 물품 등의 조달·구매의 계약·심사·검수에 관계되는 직무에 해당하고, 용역업체는 직원 A의 직무관련자입니다. 그러나 동생 B는 용역업체의 임원·대표자·관리자 또는 사외이사로 재직하고 있지 않은 한, 직원 A의 사적이해관계자에 해당되지 않아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회피 의무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KOBC 청렴 스크린

CLEAN
KOBC.3



모비딕 (2011년)

감독 박인제
출연 황정민, 진구, 김민희 등
장르 스릴러

1994년 11월 20일 서울 근교 발암교에서 일어난 의문의 폭발사건. 사건을 추적하던 열혈 사회부 기자 이방우(황정민) 앞에 어느 날 오랫동안 연락이 끊겼던 고향 후배 윤혁(진구)이 나타난다. 그는 일련의 자료들을 건네며 발암교 사건이 보여지는 것과 달리, 조작된 사건임을 암시한다. 발암교 사건의 진실을 파헤치기 위해 이방우는 동료 기자 손진기(김상호), 성효관(김민희)과 특별 취재팀을 꾸리는데... 하지만 취재를 방해하는 의문의 일당들로 인해 그들은 위험에 처하게 된다. 서서히 정체를 드러내는 정부 위의 정부, 검은 그림자 조직. 이들은 누구이며, 이들의 목적은 무엇인가.

Point! 숨막히는 진실공방전



정직한 후보 (2020년)

감독 장유정
출연 라미란, 김무열, 나문희 등
장르 코미디

거짓말이 제일 쉬운 3선 국회의원 '주상숙'(라미란)에게 청천벽력이 떨어진다. 하루아침에 거짓말은 1도 할 수 없는 '진실의 주동이'를 갖게 된 것! 최고의 무기인 '거짓말'을 잃자 그녀의 인생은 송두리째 흔들리게 되는데... 웃음 땀! 속이 땀! 똥리는 통쾌한 웃음 폭격이 시작된다!

Point! 정직함이 인정받는 시대



다음 소희 (2023년)

감독 정주리
출연 배두나, 김시은 등
장르 드라마

전주 콜센터 현장실습생 자살 사건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영화로 회사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아 세상을 떠나게 된 내용이다. "나 이제 사무직 여직원이다?" 춤을 좋아하는 씩씩한 열여덟 고등학생 소희. 졸업을 앞두고 현장실습을 나가게 되면서 점차 변하기 시작한다. "막을 수 있었잖아. 근데 왜 보고만 있었냐고." 오랜만에 복직한 형사 유진. 사건을 조사하던 중 새로운 사실을 발견하고 그 자취를 쫓는다. 같은 공간 다른 시간, 언젠가 마주했던 두 사람의 이야기. 우리는 모두 그 애를 만난 적이 있다.

Point! 올바른 조직문화에 대한 고민



카운트 (2019년)

감독 권혁재
출연 진선규, 성유빈, 오나라, 고창석 등
장르 드라마

1988년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지만 1998년 지금은 평범한 고등학교 선생님 '시헌'(진선규). 선수 생활 은퇴 후 남은 건 고집뿐, 모두를 킹받게 하는 마이웨이 행보로 주변 사람들의 속을 썩인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참석한 대회에서 뛰어난 실력에도 불구하고 승부 조작으로 기권패를 당한 '윤우'(성유빈)를 알게 된 '시헌'은 복싱부를 만들기로 결심한다. 아내 '일선'(오나라)의 열렬한 반대와 '교장'(고창석)의 끈질긴 만류도 무시한 채, '시헌'은 독기만 남은 유망주 '윤우'와 영문도 모른 채 레이더망에 걸린 '환주'(장동주), '복만'(김민희)을 데리고 본격적인 훈련에 돌입하기 시작하는데...! 쓰리, 투, 원! 긍정 파워 풀출전! 그들만의 가장 유쾌한 카운트가 시작된다.

Point! 불공평한 세상을 향한 시원한 한방

바다가 차린 식탁, Ocean recipe

영양 가득! 바위 위에 핀 꽃, 굴

단연 굴은 겨울 최고의 보양식이다. 비타민C는 철의 흡수를 도와주므로, 영양학적으로 궁합이 좋은 레몬을 곁들여 먹으면 더욱 좋다.

고르는 법

- 관자가 뚜렷하게 서 있고, 검은색 테두리 부분이 선명한 것
- 전체적으로 둥그스름하고 우유 빛깔을 띠고 통통하게 살이 오른 것
- 껍데기째 있다면, 입을 꼭 다물고 있는 것

활용 요리 _ 생굴회, 굴전, 굴밥 등

Tip! 포장지에 '가열 조리용' 또는 '익혀 먹는' 표시가 있다면 반드시 익혀서 먹어야 한다.

단단한 껍데기 속에 부드럽고 탱글한 속살, 고단백, 저지방 식품으로 영양까지 알찬 조개가 제철을 맞았다. 깨끗하게 해감하여 맑은 물에 삶기만 해도 특유의 맛이 좋은 조개로 제철 식탁을 차려보자.



시원한 국물 맛을 살리는 바지락

타우린 성분이 높아 간 기능 개선과 피로 해소에 좋은 바지락은 끓이기만 해도 깊고 시원한 육수가 우러나온다. 칼국수, 국·찌개 등 국물 요리에 활용하면 더욱 깊은 맛을 낼 수 있다.

고르는 법

- 껍데기 표면이 거칠고 밝은 빛을 띠며 윤기가 나는 것
- 껍질이 어두운 색이면 채취한지 오래된 것
- 입을 닫고 있거나, 입을 벌리고 있더라도 건드리면 움직이는 것
- 조갯살이 선명한 노란색을 띠는 것이 국산 바지락

활용 요리 _ 바지락칼국수, 바지락술찌, 바지락조개탕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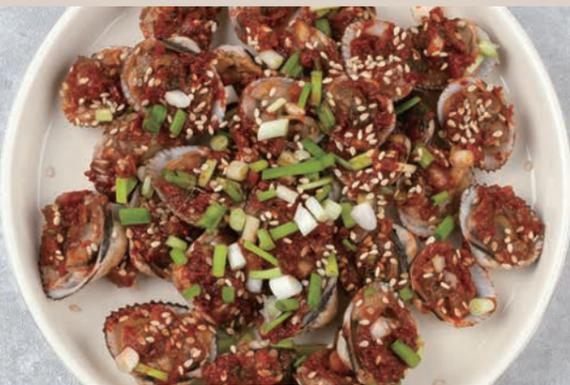
바다의 비타민, 꼬막

꼬막의 종류는 크게 참꼬막, 새꼬막, 피꼬막이 있다. 꼬막은 오래 삶으면 타우린 등 수용성 성분이 빠져나온다. 입이 벌어지지 않도록 끓는 물에 찬물을 섞어서, 살짝 삶아 먹도록 하자.

고르는 법

- 껍데기에 윤이 나고 주름굴(방사목)이 선명한 것
- 새꼬막의 경우, 30~34개 정도의 줄이 있고 알이 굵은 것
- 피꼬막의 경우, 조갯살이 붉은색을 띠며 단단한 것

활용 요리 _ 꼬막 비빔밥, 꼬막무침 등



저렴하지만 영양이 가득, 홍합

추운 겨울을 녹이는 뽀얀 국물의 홍합탕은 가성비 만점 국민 안주다. 산란기 이전, 제철을 맞은 홍합은 살 자체의 고소함과 단맛이 올라 육수의 감칠맛도 가장 좋다.

고르는 법

- 껍데기가 깨지지 않고 흠집 없이 윤기가 흐르는 것
- 살이 붉은 것은 암컷, 하얀 것은 수컷이며, 암컷의 맛이 더 뛰어나
- 같은 크기라면 더 무거운 것
- 살이 통통하고 비린내가 나지 않는 것

활용 요리 _ 홍합탕, 홍합찜, 홍합구이 등



한국해양진흥공사는 개인정보 보호방침을 준수합니다.

한국해양진흥공사 직원들이 지켜야 할 개인정보 및 정보보안 실천수칙



<p>01</p> <p>필수정보만 최소한, 추가 정보는 동의 필수</p>	<p>02</p> <p>민감 정보 처리금지 - 주민등록번호, 건강정보 등</p>	<p>03</p> <p>다른 용도의 사용이나 제3자 제공금지</p>
<p>04</p> <p>개인정보 처리방침 공개</p>	<p>05</p> <p>안전성 확보 조치 필수</p>	<p>06</p> <p>홈페이지 회원가입 시 주민번호 대체수단 도입</p>
<p>07</p> <p>정보 이용 후 반드시 파기</p>	<p>08</p> <p>개인정보 유출 시 즉시 통보</p>	<p>09</p> <p>CCTV 운영 시 안내판 설치</p>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마린시티2로 38, C1동 4층~7층 (우동, 해운대아이파크)
Tel. 051-795-1500 Fax. 051-795-1499